



일본 미디어사 연구 지형의 탐색

관학(官學)과 민간학(民間學)의 흔적, 그 접합과 분절의 역동

윤상길

신한대학교 언론학과 조교수 cyrus92@naver.com

정수영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skk21jsy@naver.com, 교신저자

이 글에서는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의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참고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형을 탐색하였다. 특히 일본 신문학의 지적 계보와 일본의 역사적 경험들이 일본의 미디어 역사 연구 지형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탐구하기 위해 주요 연구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주목할 만한 연구 조류, 즉 지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1) 제국주의적 팽창과 전쟁 수행의 역사적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고 투영하는 제국주의의 지층, 2) '일본적인 것'에 천착하면서 '일본적인 미디어'와 그 독특성을 탐구하는 민족주의의 지층, 3)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지적 흐름으로서, 소문이나 여론/세론 등 저널리즘과 미디어 현상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자유주의의 지층, 4) 미디어의 역사 과정을 역동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근대성과 중층성에 주목하는 민간학의 지층을 들 수 있다. 이 연구 결과가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 던지는 함의로는, 1) 사관에 해당되는 언론학의 지적 패러다임 혹은 계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2) 인접 학문 영역과 증첩시키거나 혹은 밀접하게 연계하는 방식이 미디어 역사 연구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

이며, 3) 연구자는 미디어 역사 연구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고, 4) 미디어 역사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해 언론학 영역 내의 주요 개념들을 개념사의 견지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미디어사 • 일본 • 관학 • 민간학 • 지형 • 지층

1. 머리말

복잡다단하게 변화해 가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머독은 기술결정주의가 새로운 기술에 의한 가능성만을 강조하고 그 기술을 소유 혹은 사용하는 자의 자유만을 과대평가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고 미디어 연구가 기술결정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움에 대한 과대평가’와 ‘미디어 중심주의적 경향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urdock, 2004, pp. 20~21).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과 미디어가 어떻게 등장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제도화될지,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그 누구도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미디어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과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미디어 연구의 방향 설정에 미디어 역사 연구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지만, 미디어 연구 스스로의 ‘성찰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로저 실버스톤(R. Silverstone)의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Why Study the Media?)』(1999/2009)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중요한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는 미디어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떤 법칙이나 보편성 혹은 이론적 종결을 찾기 위한 과학이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경험들의 차이와 독특성에 대한 인식, 인간사에 대한 이해와 설명에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실버스톤에게 있어 미디어는 사회적 문화적 삶을 구성하고 매개하는 중추적 위치에서 끊

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하고 영속적인 과정(process) 속에 있다. 그 과정에서 각종 기술과 미디어가 마치 전혀 새로운 것처럼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것들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고 만들어진 것이며, 그것들이 고안 혹은 개발되는 복잡한 과정,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맥락 속에 인간이 개입하여 그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실버스톤은 영국의 역사가이자 철학자, 정치사상가였던 이사야 벌린(Isaiah Berlin)의 용어를 빌려 미디어를 ‘경험의 일반적 구성(general texture)’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디어는 똑같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수명 주기(life cycle)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과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이 근본적으로 영원히 사회적인 것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디어에 역사적 특수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 연구는 ‘인간 중심의 과학’이어야 하며, ‘경험의 일상성(ordinariness)’과 ‘상식’을 그 출발점으로 하여 인간사의 역사적·사회적 특수성을 세심히 배려할 때 기술결정주의와 사회결정주의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다(8~10쪽). 미디어 연구에 철학이나 문학 등 인문학적 요소와 함께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이 적극적으로 동원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봤을 때, 미디어 역사 연구는 삶을 구성하는 수많은 경험들의 차이와 역사적 사회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미디어 연구의 중핵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는 미디어 연구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은 그동안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역사적 경험의 차이에 대한 검토를 어느 정도 수행해 왔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통해 내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는 소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지탱되는 영역이었던 탓에 다른 국가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 깊게 탐구할 기회는 거의 없었던 듯하다. 미디어 연구나 언론학의 지식 장에서 역사 연구가 접하는 위상과 열악한 연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양해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미디어의 실체나 관련 연구가 놓여 있는 사회적·문화적·역사적 과

정과 맥락들이 일본의 특수한 경험이나 맥락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구성되고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일본의 미디어, 나아가 미디어 연구나 미디어 역사 연구의 지형에 무관심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지하듯, 1883년 박문국에 의해 발행된 국내 최초의 근대 신문 〈한성순보〉는 일본의 인적 사상적 기술적 지원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다. 발행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본 수신사 박영효, 그에게 신문문을 설파했던 메이지 시대의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일본 신문인들의 제작 기술, 인쇄기와 활자 등이 핵심적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조선 거주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어 신문, 한글 신문, 그리고 영문 신문 등이 다수 창간되었으며, 최남선 등 일본 유학 시절 잡지를 발행했던 재일 조선인들은 귀국 후 조선에서의 잡지 발전에 기여했다. 이러한 언론 활동들에 대한 국내에서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는 점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에 대한 역사적 관심과 연구에 소홀해 온 것이 사실이다(小林聡明, 2010). 또한, 1920년대 창간된 〈조선일보〉, 〈시대일보〉, 〈동아일보〉, 일본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에 이은 네 번째 방송국으로 1927년 첫 전파를 쏘아 올린 경성방송국 등은 모두 일제 강점기 식민지 전략과 ‘일본적인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956년에 개국한 HLKZ-TV에는 미국식 상업주의 시스템이 접목되었지만, 미군정에 의해 경성방송국의 기존 인력들이 존속되면서 방송의 선전과 공보 기능, 편성과 장르 구축, 법 제도적 현실, 각종 제작 관행 등에 깊이 내재해 있던 ‘일본적인 것’을 청산하지 못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는 한국 신문과 방송의 역사적 경험을 구성하는 복잡한 지층(地層)을 형성해 왔으며, 그 지층은 전혀 ‘새로워 보이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근저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임종수, 2004; 최영목, 2010).

국내의 언론학 영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김영희(2012)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신문을 비롯한 미디어 현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고 언론학 관련 연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특히, 일본 조치(上智)대학에서 수학한 곽복산(1911~1971)이나 일본 도쿄제국대학 신문연구실을 경험한 정

치인이자 언론인 양재하(1906~1966) 등은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이후 1950년대 초반에 걸쳐 신문 연구와 신문학 교육을 국내에 도입한 인물들이다. 국내에서 미디어와 언론에 관한 학문적 경향성이나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데에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1959년 창립되어 1985년 한국언론학회로 개칭한 한국신문학회의 초대회장 역시 광복산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과 독일 등 서양에서 수학한 연구자들이 대학에 자리 잡으면서 국내 언론학 교육과 연구의 지배적인 경향이 크게 변화했지만, 일본 신문학의 역사와 경험들은 국내 언론학 지형을 이해하고 성찰함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자 지층이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의 ‘미디어’와 ‘언론/미디어에 대한 연구’ 지형은 일본의 ‘미디어 역사’와 이에 대한 연구, 즉 ‘미디어사 연구’와 매우 밀접하고 중층적으로 얽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미디어 역사 연구 지형과 이를 구성하는 지층을 지식사회학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지식사회학적 관점은 지식이 사회의 결과물이라는 전제하에 지식이 어떠한 사회적 요인을 조건으로 취하며 또 그 요인과 어떻게 관련을 맺느냐에 관심을 둔다.

흔히 개인의 특정 연구가 개별적 수준에서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선, 이론과 자료 그리고 현장이 삼위일체가 되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한 사회 내의 지식 생산 과정 역시 기존 이론과 자료, 현장과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 그에 의해 생산된 지식에 일정한 흔적을 남길 수 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미디어 역사 연구의 지형은 1) 어떠한 관점으로 언론과 미디어를 이해하는가에 따라(언론학의 지적 계보), 2) 어떠한 자료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자료의 축적과 발간 상황), 3) 어떠한 미디어의 역사적 현장을 겪었는가(미디어 역사의 경험)에 따라 각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 차원에서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식사회학적 맥락, 즉 일본 신문학의 출발과 이후 역사 속에서 어떠한 지적 풍토와 계보를 형성해 왔고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일본 미

디어사 연구 지형을 형성하는 주요 지층은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다. 일본의 신문학과 저널리즘, 그리고 미디어사 분야에서 어떤 자료와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며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 그 과정에서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들과 사회 문화적 맥락들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 이들 지층의 끊임없는 접합과 분절을 통해 어떤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역동성에 관해 고찰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형성하는 주요 지층은 일본의 신문학과 미디어역사 지식이 역사적으로 국가 권력과 맺어 온 거리와 관계성을 기준으로 추출하고자 하였다. 즉, 일본의 신문학이 ‘관학’(官學)으로 도입되어 국가의 필요성과 요구에 복무하는 제도권(아카데미) 중심의 학문으로 발전한 이후, 다양한 경험과 사상들, 다양한 지향점과 사회적 맥락들이 경합하거나 교섭하면서 때로는 그 경계선을 횡단하고 가로지르면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민간학’(民間學)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층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동성을 살펴볼 것이다.¹

지식사회학적 시각에서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형과 주요 지층의 역동성을 검토하는 이 글은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처한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참고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미디어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디어 역사 연구’ 그 자체를 상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미디어 연구가 기술결정주의를 넘어 성찰성과 책임성을 수반한 인간 중심의 과학을 지향하며 나아가갈 방향을 겨누는 데 ‘미디어 역사 연구’가 유용한 가늠쇠 역할을 할 수

1 일본에서 ‘관학’은 에도시대의 주자학과 같이 당대의 정부가 정통성을 인정하면서 통치의 근거로 삼았던 학문을 뜻하였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관립(국공립)의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을 지칭하게 되었다. ‘민간학’은 일본의 근대 역사가인 가노 마사나오(鹿野政直, 1983/2008)가 제창한 개념이다. 민중적이고 생활적인 측면을 중시하면서 자생적으로 성립한 민간의 학문을 의미한다. 가나 마사나오는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 오키나와학(沖縄學)의 창시자인 이와 후유(伊波普猷), 초창기 박물학과 민속학에 업적을 남긴 재야학자 미나가타 쿠마구즈(南方熊楠), 민예운동을 제창한 종교철학자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등의 학문을 민간학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식사회학적 맥락

1) 신문학의 도입과 제도권 학문으로서의 특성: 아카데미즘(官學)과 저널리즘의 융합

일본의 미디어 역사 연구 지형을 지식사회학적 맥락에서 고찰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론 및 미디어 관련 교육과 연구의 특징, 그 역사적 배경과 맥락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본 대학 최초의 언론 관련 강사는 스즈키 에츠(鈴木悅, 1886~1933)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소설가이자 노동운동가이며 잡지와 서적의 편집인이자 신문 기자였다는 점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이라는, 향후 일본 신문학의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선구적으로 잘 보여 준다. 스즈키는 라디오를 제외한 당시의 거의 모든 미디어 분야를 횡단하며 활약했던 저널리스트였다. 타무라 노리오(田村紀雄, 1999)에 의하면, 스즈키가 미디어 활동과 교육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자연주의 문학사조의 보급과 캐나다에서 스스로가 ‘경험’했던 인종차별의 철폐였다. 그 근원에는 ‘인간의 자유와 휴머니즘’, 저널리스트로서의 ‘진실 추구 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후, 신문학(新聞學)이라는 이름의 학문을 일본에 본격적으로 들여온 것은 신문 기자 출신의 오노 히데오(小野秀雄)다. 오노는 독일의 신문학을 일본에 소개하고 도쿄제국대학에 신문학연구실을 설치했으며(1929년)², 조치대학에 신문학과를 창설(1932년)하는 등 다수의 대학에

² 신문학연구실은 1949년에 신문연구소로 발전하였고 1992년 사회정보연구소로 개칭되었다. 2004년에 도쿄대학이 법인화하면서 사회정보연구소는 도쿄대학 대학원 정보학환(情報学環) 센터로 통합되었다.

신문학과를 설립하는 데 기여했다. 당시 신문학과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학, 역사 등 신문 기자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신문의 위상에 대한 이해, 인격 함양을 위한 강의를 가미했다. 한국 대학의 언론학 관련 학과 커리큘럼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도 했던 조지대학 신문학과와 당시 커리큘럼 역시 신문 기자 양성 및 재교육을 주요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오노 외에 주요 신문사 편집 간부, 광고부장, 내무성의 신문법제 담당자 등도 강사로 초빙되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후, 다수의 대학에 신문 기자 양성을 위한 학과 혹은 교육 코스가 도입되었다. 이는 민주주의가 도입되고 신문 및 잡지의 자유가 증진되면서 기자의 사회적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연합군총사령부(GHQ)³ 점령기를 거쳐 패전국 독일의 흐름에서 벗어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영향하에 놓이면서 신문교육기관과 관련 연구소가 설치되었다. 미디어·교육 정책의 중심이었던 민간정보교육국(CIE), 도쿄제국대학·와세다대학·게이오대학 등 주요 대학과 오노 히데오를 중심으로 한 신문학 연구자들, 그리고 CIE의 지도하에 1946년 7월 발족한 일본신문협회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대립과 갈등, 협력과 타협의 산물이었다. 당시 CIE는 미국식 교육 시스템뿐 아니라, 저널리즘 이론과 방법론, 교수법과 커리큘럼 등에 경험실증적 사회과학과 저널리스트 양성 교육을 중시하는 미국식 사조의 도입을 강요했고, 이에 대해 일본의 대학과 연구자들, 일본신문협회를 중심으로 한 신문 기업의 반발의식도 적지 않았다(森 暢平, 2014).

이러한 반발의식은 미국식 교육 시스템과 학문, 서구에서 생산된 이론이나 경험실증적 연구 사조 등을 수입하더라도 이를 일본의 현실과

3 GHQ(General Headquarters)는 '총사령부'를 의미하는 용어로 일본에서만 통용되는 역사학 용어로 볼 수 있다. '연합군 총사령부'의 정식 영문 약칭은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이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서는 GHQ/SCAP 혹은 SCAP으로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본의 지적 풍토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인 GHQ를 사용하였다.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토착화된 학문, ‘일본적인 것’에 천착하고 연구하는 학문으로 발전시켜 온 지적 풍토와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⁴. 이는 1951년 창립된 ‘일본신문학회(日本新聞学会)’의 위상과 목적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⁵ 일본신문학회 창립의 핵심 인물이자 초대회장이기도 했던 오노 히데오는 학회 창립식에서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을 강조했는데, 『신문연구 50년(新聞研究五十年)』(1971)에서 창립식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술회했다.

나는 일본신문학회가 연구자 제군의 열의와 실제 현장의 절대적인 원조에 의해 성대하게 발족하게 된 것을 감사한 후, 일본신문학회는 미국과 독일의 두 선배 학회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신문학회로서 두 학회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독일 양국의 신문학회는 학자들의 단체지만, 일본신문학회는 학자뿐 아니라 현업 종사자들도 망라한 학회이다. 학문이 현실에서 유리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업 종사자들도 학문의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측의 교류야말로 미국, 독일과는 다른 일본신문학회만이 가진 특색이다.”(小野秀雄, 1971, p.287; 中正樹, 2006, p.16 재인용)

“미국과 독일의 두 선배 학회에 이은 세계 세 번째 신문학회로서 두 학회와는 좀 다르다”면서 “미국, 독일과는 다른 일본신문학회만이 가진 특색”을 강조한 오노의 인식과 방침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

4 ‘일본적인 것’에 천착하는 일본 신문학의 지적 풍토에 관해서는 4장에서 후술하겠다.

5 현재, 미디어/언론학 연구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学会)’다. 1951년 설립된 ‘일본신문학회’가 1993년 그 이름을 개칭한 것이다. 1952년 학술지 『신문학평론(新聞学評論)』을 창간하여 연1회 간행해 오다가, 1993년 학회명이 변경되면서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로 제호를 변경했다. 연2회(1월, 7월) 간행된다.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는 매호 기획 특집, 일반 투고 논문, 그리고 춘계/추계 정기학술대회 연구 발표 세션(워크숍)의 내용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이라는 당시 일본 신문학을 둘러싼 현실과 맥락에서 기인한다. 일본의 신문학 연구가 대학과는 무관한 비학술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에서 출발했으며(요시미 순야, 2002), 오노를 비롯하여 학회 설립에 참가했던 인물들 중 다수가 신문 기자 출신이었다는 점, 학회 설립에 일본신문협회의 찬조가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나가 마사키는 결국 본래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할 저널리즘이 저널리즘 연구에 직접 관여하는, 그래서 자기 언급적인 모순을 고려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널리즘을 비평(비판)하는 연구’로 자리매김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분석하였다(中正樹, 2006, pp.16~20).

이후, ‘저널리즘론’이 ‘매스 커뮤니케이션론’으로, ‘신문학’이 ‘매스 미디어론’으로 변경되었고, 언론 활동을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일부로 파악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수용자 대중, 여론, 효과, 기능 등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와 양적 조사 방법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는 많은 대학에 커뮤니케이션학과, 1990년대 들어서는 커뮤니케이션학부가 개설되면서 기존에 ‘신문학’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던 교육이나 연구 조직이 ‘사회 정보’ 혹은 ‘매스커뮤니케이션’ 등으로 변화하는 움직임도 가시화되었다(田村紀雄, 1999, pp.8~14). 도쿄대학 신문연구소가 사회정보연구소로 개조되고, 일본신문학회가 일본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로 개칭된 것이 대표적이다.

사사키 타카시(佐々木隆, 1999)가 지적한 바처럼, 일본의 신문학은 1920년대 독일의 신문학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사회학 혹은 사회심리학의 일부로 수용되었다. 여기에 타무라(田村紀雄, 1999)가 지적한 것처럼, 커뮤니케이션학이 정보의 유통 과정 연구를 중심으로 인접 사회과학이나 인문학 때로는 자연과학 등 다른 연구 영역의 성과를 흡수하거나 혹은 독자적인 방법론에 의해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자리매김하면서 일본의 신문학 연구는 다학제적인 경향을 보이며 발전해 왔다. 신문학과 저널리즘이 여전히 독자적인 영역임에는 틀림없지만 커뮤니케이션학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 그 영역과 도구를 확장해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인간 중심의 미디어 연구를 위해서는 역사적 성찰과 인문학적 접근, 역

사적 사회적 특수성과 경험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실버스톤의 관점에서 봤을 때(1999/2009), 일본에서의 미디어 혹은 저널리즘 연구 분야가 역사학, 정치학, 철학, 사회학, 인문학, 교육학, 국문학 등 인접 학문 영역과 중첩되거나 혹은 밀접한 연계 속에 발전해 왔다는 점, 그리고 관학으로 출발한 아카데미즘과 일본 사회의 저널리즘 경험이 융합하여 ‘일본적인 것’에 천착하는 연구 전통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지적 계보를 형성하였고 그것이 작금의 미디어 연구와 미디어사 연구 지형 속에도 뿌리 깊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1990년대 이후 일본 미디어사 연구 동향과 지식사회학적 특징

앞서 소개한 신문학 연구의 전통적 특징과 지적 풍토 속에서 미디어의 역사에 관한 연구는 어떤 위치와 위상을 점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일본에서 미디어의 역사는 ‘신문사’, ‘방송사’, ‘영화사’, ‘커뮤니케이션사’, ‘저널리즘사’, ‘광고사’, ‘PR사’ 등 각 미디어별로 연구되어 오다가, 1990년 이후 ‘미디어사’라는 명칭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연구 영역”이다(飯塚 浩一, 2007, p. 61). 신문사 연구의 고전으로 꼽히는 오노 히데오의 『일본신문발달사(日本新聞発達史)』(1922)와 『신문원론(新聞原論)』(1947), 언론학 전공 학생이나 언론사 신입사원의 필독서로 읽히고 있는 하루하라 아키히코(春原昭彦)의 『일본신문통사(日本新聞通史)』(1986) 등 신문의 역사에 관한 연구서를 필두로, 통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등 각각의 미디어가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맥락 속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발전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연구⁶, 특

6 대표적인 연구서로 메이지시대 문학과 출판문화의 서지학·문헌학적 연구에 천착했던 오카노 다케오(岡野他家夫)의 『메이지언론사(明治言論史)』(1974), 이쿠다 마사키(生田正輝)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諸問題)』(1967), 다케야마 아키코(竹山昭子)의 『옥음방송(玉音放送)』(1989)과 『라디오의 시대(ラジオの時代)』(2002), 우치가와 요시미(内川芳美)의 『일본광고발달사 상/하(日本広告発達史:上/下)』(1976, 1980) 등을 참고할 만하다.

정 미디어 기업이나 관련 산업 역사를 실증적으로 정리한 통사⁷⁾, 미디어의 내용과 제작자, 독자와 광고, 법제도와 정책 등의 역사에 관한 연구 등 미디어사는 그 스펙트럼을 확장하면서 발전해 왔다(土屋礼子, 2011).

1990년대 이후 미디어 역사 연구가 ‘미디어사’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정착되는 과정에서 미디어, 저널리즘, 매스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역사 연구 및 관련 연구자 상호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별도의 학술단체가 설립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992년 3월에 ‘미디어사 연구회(メディア史研究会)’가 설립되었는데, 이 학술단체는 미디어와 매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실증적 역사 연구를 발표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학술지 『미디어사연구(メディア史研究)』를 1994년 3월에 창간하였다. 이 학술지는 연 2회 발행되고 있다. 매호 특집 기획 주제를 설정하여 관련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일반 투고 논문 및 미디어사 관련 서평을 별도로 게재하면서 미디어사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한편, ‘일본매스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 발간하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에도 미디어사를 주제로 한 일반 투고 논문이 매호 평균 2~3편 이상 게재되고 있으며, 기획 특집으로 미디어사 관련 연구를 별도로 구성한 바 있다. 2000년 이후 게재된 미디어사 관련 기획 특집 주제는 “도쿄 올림픽 80년사와 미디어: 3.11 이후의 현재를 재조명한다”(제86호, 2015), “원자력/원폭 보도의 사상(史相)을 묻는 관점”(제84호, 2014),

7 신문사의 통사를 다룬 것으로는 『아사히신문 90년: 1879~1969(朝日新聞 90年: 1879~1969)』(1969), 『마이니치신문 70년(毎日新聞 70年)』(1952), 『일본신문백년사(日本新聞百年史)』(日本新聞連盟, 1962)가 대표적이다. 방송의 경우, 방송, 기술, 영업 등 주요 부문별 역사를 다루거나 각 방송사의 방송 사업 역사를 중심으로 기술한 방송사가 있다. 이 중 일본방송협회(NHK)가 제작한 방송사(통사)는 『도쿄방송국연혁사(東京放送局沿革史)』(1928), 『일본방송협회사(日本放送協会史)』(1939), 『일본방송사: 25년사(日本放送史: 25年史)』(1951), 『일본방송사: 35년사(日本放送史: 35年史)』(1965), 『방송50년사(放送五十年史)』(1977), 『20세기방송사(20世紀放送史)』(2001) 등이 있다. 광고 분야의 역사서로는 『일본광고발달사(日本広告発達史)』(電通, 1976), 『광고의 사회사(広告の社会史)』(法政大学出版局, 1984) 등을 들 수 있다.

“쇼와의 기억과 미디어”(제76호, 2010),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회고와 전망”(제70호, 2007), “전시 미디어와 권력: 일본을 중심으로”(제66호, 2005), “미디어사 연구의 방법 재고: 메시지의 생산과 수용의 역사”(제67호, 2005), “텔레비전 50년의 빛과 그림자”(제63호, 2003) 등이다.

제70호(2007)의 기획 특집 중 하나로 게재된 이즈카 코이치(飯塚浩一)의 “미디어의 역사: 연구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논문에서는 일본 미디어사에 관한 연구가 전체 미디어 연구 혹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개와 그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1996년 이후 10년간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실린 논문을 통해 주목할 만한 미디어사 연구 동향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쟁 당시, 그리고 GHQ 점령기에 실시되었던 프로파간다에 관한 연구, 둘째, 작품론·감독론·배우론 등을 중심으로 했던 기존 영화 연구의 범주를 넘어, 정책·제도·제작 과정·관객에 대한 영향 등 미디어로서의 영화 연구, 셋째, 신문이나 방송 등 미디어 형태나 기술 혹은 특정 시대를 구분하기보다 미디어가 시대와 사회를 관통하여 어떤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를 고찰하는 연구 등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한 주목할 만한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미디어사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언하기도 했다. 즉, 미디어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는 그 미디어가 등장했던 사회와 시대 속에서 ①기성 권력, ②기존 미디어, ③새로운 미디어, ④수용자(audience)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가 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미디어와 사회와의 관계, 미디어와 여타 미디어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사를 바라보는 방법론이나 수용자 역사, 그리고 해외의 미디어사 등을 연구함에 있어서 ‘미디어사를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飯塚浩一, 2007).

최근의 미디어사 연구 동향 중 특기할 것은 냉전기 미디어사 연구나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의 미디어사를 연구하는 움직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토 타쿠미(佐藤卓己)의 『8월 15일의 신화(八月十五日の神話)』(2005), 사토 타쿠미와 손안석(孫安石)이 편저

한 『동아시아의 종전기념일(東アジアの終戦記念日)』(2007) 등의 연구서는 일본에서의 종전기념일이 아시아 각국의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한 것이다. 키시 토시히코(貴志俊彦)와 츠치야 유코(土屋由香)의 편저로 출판된 『문화 냉전의 시대: 미국과 아시아(文化冷戦の時代: アメリカとアジア)』(2009), 고바야시 소메이(小林聡明)의 「미군정기 남조선의 개인 미디어와 검열: 미군정에 의한 검열체제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米軍政期南朝鮮におけるパーソナルメディアと検閲: 米軍政による検閲体制の成立過程を中心に)」(『미디어사연구』, 2004), 『재일조선인의 미디어 공간(在日朝鮮人のメディア空間)』(2007), 「냉전기 아시아의 ‘전파전쟁’ 연구서설: 조선전쟁 휴전의 VUNC를 중심으로(冷戦期アジアの‘電波戦争’研究序説: 朝鮮戦争休戦後のVUNCに注目して)」(『응용사회학연구』, 2010) 등의 연구는 냉전기 아시아의 미디어를 분석한 연구들이다.

한편,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동향 속에서 읽을 수 있는 지식사회학적 특징으로 주목할 것은 『미디어사연구』뿐 아니라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와 같은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주제의 상당 비율이 미디어사 연구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논문의 필자 중 다수가 학문 후속 세대, 즉 대학원생이라는 점이다.⁸ 일본에서의 신문학 도입을 둘러싼 역사와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봤을 때,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일본의 지식사회를 포괄하고 지탱하는 전반적인 학풍과 연구 풍토의 속성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이다. 기성 연구자의 경우, 학술지 논문보다는 내용과 형식, 분량 등에서 보다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일반 단행본을 통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앞서 소개한 것

⁸ 본 연구는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형 및 지적계보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사연구』와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주제나 주요 방법론, 저자의 특징과 분포 등에 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일본의 미디어 연구 전체 지형 속에서 미디어사 연구가 어떤 위치와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처럼 일본의 미디어 혹은 저널리즘 분야가 역사학과 인문학을 포괄하는 다학제적인 연구 풍토와 ‘일본적인 것’에 천착하는 연구 전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새롭게 등장하는 미디어와 기술들, 이를 매개로 한 각종 커뮤니케이션 현상 속에서 ‘일본적인 것’에 천착한다는 것은 일본의 맥락과 역사적 경험들을 탐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일본에서 미디어사 연구는 매스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연구의 한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연구 영역인 동시에, (절대적 평가나 비교는 불가능하겠지만) 미디어 혹은 매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연구 분야 전체를 포괄하고 횡단하는 기초 토대 학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 신문학 연구와 미디어사 연구 지형의 지식사회학적 맥락 속에서 미디어사 연구는 어떤 지적 계보와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가. 어떤 기준과 척도를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지층의 범주와 관점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학문으로서의 출발점상의 성격과 지적 계보’를 검토하기 위하여 ‘당대 권력과의 거리와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1) 제국주의의 지층, 2) 민족주의의 지층, 3) 자유주의의 지층, 4) 민간학의 지층 등 크게 네 가지 지층으로 범주화하였다. 이어서, 각 지층들은 일본의 역사적 경험과 맥락들, 다양한 가치와 지향점들과 경합 혹은 교섭하면서, 접합 혹은 분절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흔적을 남겨 왔는지 그 역동적 패러다임을 검토하겠다.

3. 제국주의의 지층: 전쟁 수행과 제국주의 경험의 투영

일본 사회는 크게 두 차례의 근대화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다. 하나는 메이지유신 이후이며, 또 하나는 전후 고도경제성장 시기이다. 일본의 근대화는 서구화를 의미하지만, 메이지 시기 부국강병, 식산흥업(殖産興業) 등을 기치로 중앙집권화를 도모하고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면서도 기존의 전통 문화를 모두 버리지 않았다. 전통 문화와 서구 문화

의 융합과 개량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구축하고자 한 것인데, 그 과정의 중심에서 신문과 영화 등 당시의 주요 매스미디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長谷川倫子, 1998). 특히, 근대 신문의 성립기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기와 전쟁 전후 시기에 신문, 영화, 라디오 등을 강력히 통제했던 제국주의 권력은 일본 미디어의 역사적 변천과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지층을 형성하고 있다. 즉, '제국주의의 지층'이다.

1) 전쟁 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신문학

일본의 신문학이 1920년대 독일에서 도입되었음을 앞에서 서술한 바 있다. 독일의 신문학은 19세기 말 군중과 공중, 여론, 저널리즘 등의 분야에 대한 지적 관심을 배경으로 등장하여,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매스미디어에 관한 역사적, 사회학적, 정책과학적 교육·연구 분야로 제도화되었다. 당시 독일의 신문학은 선전학과 프로파간다 이론으로 흡수되었고 나치 독일의 세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中正樹, 2006, p. 77).

일본의 초기 신문학은 국가주의적 학문으로 발전한 독일 신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리고 제1, 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세 가지 사회적 힘이 상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 첫째, 대학 밖에서는 배움을 추구하는 민중들의 욕망이 팽창하고 있었고, 둘째, 대학을 기반으로 한 학문 세계는 순수 이론 연구를 주장하는 폐쇄적인 지적 풍토 속에서 신문학 같은 실용적이고 새로운 학문을 경원시했으며, 셋째, 국가는 전면전과 총력 체제를 위해 학문과 지적 자원을 동원하려고 했고 신문학은 국가의 목적에 매우 유용한 학문이었다(요시미 슌야, 2002, 43쪽). 이러한 구조 속에서 오노 히데오는 신문학을 지적 연구 대상이자 새로운 학문 분야로 확립하는 동시에,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문학 학술 체계로 구축하고자 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연구와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생산된 정보나 선전에 관한 연구, 여론 동향 조사 등의 자료를 일본에 소개했다. 이를 통해 신문학은 선전학(宣伝学)으로 발전했는데, 당시 일본 정부의 총력전과 사상전에 직접

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학문으로 여겨졌다. 이를 근거로 요시미 순야는 오노 히데오의 신문론과 신문학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민족주의에 기반한 '경험주의적 언설'로 규정했다. 반면, 오노와는 차별화되는 패러다임 속에서 신문 연구의 또 다른 축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 코야마 에이조(小山榮三)다. 코야마는 오노와 함께 도쿄제국대학 신문연구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독일 신문학 계보를 함께 잇고 있었지만, 그 연구 핵심은 '주관적 구성주의' 관점에서 미디어와 대중심리학과 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에 있었다. 신문의 '통합 기능'을 강조한 코야마는 『선전기술론(宣伝技術論)』(1937), 『전시선전론(戰時宣伝論)』(1942) 등의 저술을 통해 선전은 정치도구로써 국가 여론을 강력하고 명료하게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요시미 순야, 2002, 42~48쪽; 中正樹, 2006, pp.77~81).

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했고, 이는 국가주의적 학문이었던 초기 신문학 연구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는 당시 언론과 언론인, 그리고 신문학 역시 전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신문학이라는 학문 역시 패전 이후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독일의 신문학을 도입한 일본의 초기 신문학 역시 국가주의적인 동시에 관학의 성격을 내재하고 있었지만 독일처럼 쇠퇴하지는 않았다. 또한 GHQ 점령기를 거쳐 미국식 저널리즘 사조와 학문적 풍토가 도입되면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지만, 일본에서 독일 신문학 계보가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패전 이후 독일과 일본에서 신문학의 위상과 그 내용이 상이하게 발전해 온 이유는 당시 일본의 신문학 연구 분야 자체가 독일에 비해 소규모였다는 것, 그리고 독일과 일본에서의 전후 처리 방식이나 전쟁 책임을 포함한 역사 청산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中正樹, 2006, p. 81). 하지만, 앞서 소개한 오노 히데오의 일본신문학회 창립기념사에서 알 수 있듯이(中正樹, 2006), 독일의 신문학을 수입하고, 미국식 저널리즘 사조와 학문 풍토가 도입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들 국가의 신문학과는 차별화된 일본적 특성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사상과 철학 역시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로 작동했음

을 추정할 수 있다.

2) 제국주의 경험의 투영

일본의 제국주의 경험은 미디어사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본의 초기 신문학이 일종의 관학으로 정립되고 전쟁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듯이,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와 경험은 미디어사 연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즈카 코이치(2007), 츠치야 레이코(土屋礼子)(2011) 등의 선행 연구, 그리고 『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에 수록된 미디어사 관련 논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의 제국주의 경험과 미디어사 연구가 어떻게 접합하고 연계되어 왔는지 몇 가지 조류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언론 통제, 미디어와 권력의 관계, 언론·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연구 조류이다. 사사키 타카시(佐々木隆)가 1999년 출판한 『일본의 근대 14: 미디어와 권력(日本の近代 14:メディアと権力)』은 메이지기에서 쇼와기에 이르는 동안 주요 시기별로 분기점이 되었던 사건이나 제도 등을 매개로 언론·언론인과 정부·권력 간의 은밀한 관계를 규명하였다. 야마나가 히사시(山中恒)의 『신문은 전쟁을 미화하라! 전시국가정보기구사(新聞は戦争を美化せよ!—戦時国家情報機構史)』(2000), 아사히신문 ‘신문과 전쟁’ 취재반에서 집필한 『전쟁과 신문(戦争と新聞)』(2008) 등도 이 조류에 포함되는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전쟁 중의 시기는 군의 통제에 의해 미디어가 보도의 자유를 빼앗긴 암묵의 시대’였다는 전제하에 미디어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사토 타쿠미는 「총력전 체제와 사상전의 언설 공간(総力戦体制と思想戦の言説空間)」(1995)이라는 글에서 ‘근대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에는 전시기와 점령기 사이에 큰 단절이 존재한다. 전후 국민의식 형성의 첫 걸음은 전쟁 중에 수행되었던 선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형태로 시작되었다’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관점이 확산된 결과, 전전과 전후의 언설 공간이 전혀 다른 별개의 것

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전쟁 종결을 종착점 혹은 출발점으로 인식하는 역사 서술 속에서는 전시 동원 체제하에 조직화된 통신사, 신문사, 방송사, 출판사 등의 각종 미디어가 전후 아무런 상처도 변화도 없이 그대로 계승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飯塚浩一, 2007, p. 70),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즈카 코이치(2007)는 전쟁 당시의 미디어가 현 시점에서의 ‘보도의 자유’와 동일한 사상을 지니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미디어사를 상대화’하는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자들은 ‘언론 통제의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 관한 사료 분석’, ‘전전(戰前) = 전후(戰後)의 연속성에 대한 검증’, ‘종전(終戰)을 둘러싼 역사적 기억의 창조와 변화 분석’ 등을 통해 미디어사를 상대화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전쟁 중, 그리고 전후 GHQ 점령기의 프로파간다를 연구하는 조류이다. 프로파간다에 관한 연구 조류는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연합군이나 미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일본과 일본 국민을 주요 대상으로 했던 프로파간다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츠가네사와 토시히로(津金澤聰廣)와 사토 타쿠미는 편저 『홍보·광고·프로파간다(広報・広告・プロパガンダ)』(2003)에서 ‘공공성’을 핵심 키워드로 하여, 홍보, 광고, 프로파간다, 그리고 여론/세론(世論/輿論) 등의 역사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향후 과제를 밝히고자 했다. 각각의 개념과 그 관계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했다. 야마모토 타케토시(山本武利)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이 일본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프로파간다의 실체에 주목했다. 발신자의 정체를 은폐하는 블랙 라디오 활동의 궤적을 다룬 OSS 자료를 미국 국립 공문서관에서 수집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물이 『블랙 프로파간다 모략의 라디오(ブラック・プロパガンダ謀略のラジオ)』(2002)라는 저술이다. 이 외에도 20세기미디어연구소(20世紀メディア研究所) 등에서는 전쟁 중 혹은 전후 GHQ 점령하에 실시된 프로파간다 실태를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프로파간다에 관

한 또 다른 연구 조류는 일본 정부와 군이 주체가 되어 식민지 및 점령 지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프로파간다에 관한 연구들이다. 야마모토 타케토시의 책임 편저로 저술된 『이와나미 강좌 ‘제국’ 일본의 학지 제4권 미디어 속의 제국(岩波講座 ‘帝国’ 日本の学知 第4卷 メディアの中の帝国)』(2006)에서는 제국주의 시대 일본 국내는 물론, 일본의 점령지였던 조선, 만주, 중국 등에서 실시되었던 프로파간다를 통해 미디어와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정보 선전 정책(朝鮮總督府の情報宣伝政策)」(『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49호, 1996), 「전시하 일본 대외 선전의 ‘흑인 공작’(戰時下日本の対外宣伝における ‘黒人工作’)」(『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46호, 1995) 등도 이 유형의 연구에 포함된다.

셋째, 아시아 각국의 미디어와 언론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조류이다. 「중국 국민당의 대미 사진 선전 1937~1941: 국제선전처의 활동을 중심으로(中国国民党の対米写真宣伝1937~1941: 国際宣伝処の活動を中心に)」(『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73호, 2008), 「조선전쟁 시 미국의 프로파간다 방송과 NHK(朝鮮戦争におけるアメリカのプロパガンダ放送とNHK)」(『매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60호, 2002)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만주사변 발발 이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만주국이나 다른 식민지, 점령지에서 활동했던 일본 미디어를 냉정하게 재조명하는 연구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라디오 역할(植民地朝鮮におけるラジオの役割)」(『Intelligence』, 4호, 2004) 등의 연구가 그것이다. 『아사히신문 외지판(朝日新聞外地版)』(2007~2011)은 전쟁 기간 동안 대만, 조선 등 일본 외의 지역에서 발행된 아사히신문 지면을 집대성하여 출판한 것이다. 츠치야 레이크(2011)에 의하면, 이러한 연구들은 일본에서 오랜 기간 금기시되어 왔던 분야이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시아 각 지역의 자료에 대한 언어적 물리적 접근성의 한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공헌했던 신문학 연구자들의 침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미디어사 연구자들의 세대교체, 아시아 각국과의 인적 교류 및 공동 연구

의 활성화, 식민지·점령기 연구에 관한 미국 공문서 자료 등 새로운 자료 발굴 등이 가능해지면서, 일본의 시각에서 점령기 및 전후 미디어를 연구하는 것에서 벗어나 제국주의 시대 식민지나 점령지의 미디어사를 아시아 각국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비교 연구하는 움직임도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앞서 일본 미디어사의 최근 연구 동향에서 소개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미디어사 연구가 여전히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한 코바야시 소메이(2010)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대만 등의 연구자들이 '7자 협의체'를 함께 구성하고 연대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미디어사 공동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국강병, 식산흥업을 기치로 근대적 국가 수립과 제국주의적 팽창을 도모했던 일본에서 초기 신문학이라는 학문 영역은 전쟁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미디어사 연구자들의 연구 관심과 태도에도 직간접적으로 투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디어뿐 아니라 신문학이라는 학문이 과거 국가주의와 제국 경영의 도구로써 기여했던 것에 대한 연구자들의 침묵이나 전쟁 이전과 이후의 연속성에 대한 외면 속에서 전쟁 시기의 아시아 식민지나 점령 지역에 관한 연구는 금기시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연구 영역의 한계와 틀을 뛰어 넘어, 제국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역사관을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미디어사를 상대화하는 관점에 서서 비판적 성찰을 시도하거나, 동아시아 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미디어사를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디어사 연구의 다양한 패러다임 속에서 주요 관점과 접근법, 지향점의 차이가 있을 지언정, 제국주의라는 강렬한 경험은 제국 해체 이후에도 역사 연구의 지적 풍토와 조류, 그리고 연구자들의 자의식 속에 어떤 형태로든 일정 정도 내재해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4. 민족주의의 지층: ‘일본적인 것’에 대한 탐구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떠받치고 있는 또 다른 지층은 일본적인 미디어 근대를 규명하고자 하는 지적 노력을 들 수 있다. 요시미 순야(2002)의 분석에 의하면, 1, 2차 세계대전 사이 일본의 신문학 연구는 다양한 패러다임들이 중층적으로 조합되는 특징을 지녔는데, 이때 그 패러다임의 한 쪽에서 있는 것이 오노 히데오의 저널리즘에 관한 언설이었다. 1922년 출판된 『일본신문발달사』에서 오노는 한 국가에서의 신문 발달은 그 국가의 문화적 특징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노는 “신문의 생성과 발달이 지리적으로는 관련 지역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고, 또 역사적으로는 그 시대의 문화와 연관된다”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왜 서구의 신문이 각 국가별로 독특하게 발달하였으며, 왜 그 신문들이 독특한 지역적 특징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를 잘 설명해 준다. 일본에서도 신문이 일본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 생성되고 발달했다는 점에서 서구와 전혀 다르지 않다(1쪽). 즉, 오노는 신문 연구가 각 사회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해 주는 문화 연구의 한 형태로 발달되어야 함을 믿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학문 활동 내내 이 시각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1952년 『신문학평론(新聞學評論)』의 창간사에서 오노는 “우리는 가능한 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존하지 않은 채 일본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일본 현실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는 것은 일본의 신문학을 하는 학생들의 주요 임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일례로, 오노 히데오는 『가와라반 이야기: 에도시대 매스컴 역사(かわら版物語: 江戸時代マス・コミの歴史)』에서 일본의 가와라반(かわら版)⁹이 15세기 후반 독일에서 유포되기 시작한 한 페이지짜리 목판인쇄본 <플루크블라트(Flugblatt)>와 유사함을 밝혀 낸 바 있었다(43~44쪽).¹⁰

9 에도(江戸) 시대에 찰흙에 글씨나 그림 등을 새겨, 기와처럼 구운 것을 판으로 하여 인쇄한 속보 기사판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가능한 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존하지 않은 채 일본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라는 오노 히데오의 신념과 주장은 ‘서구에서 학문과 이론을 수입하더라도 일본의 사회와 문화적 맥락을 반영하여 일본의 현실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토착화된 학문으로 발전시킨다’는 인식과 태도로 계승되어 일본의 미디어 연구자들에게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이는 미디어사 연구 지형 속에서도 그 뚜렷한 지층을 형성해 왔다. 이 글에서는 이를 ‘민족주의의 지층’으로 명명하고 그 특징과 역사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1) 일본형(型) 신문의 형성 과정에 대한 탐구

제도와 문화 형태로서 근대적 신문이 출현한 것은 메이지 유신 이후였고,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신문은 근대적인 개혁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의식 계몽의 효율적 수단이자 국민 형성과 국가 통치의 수단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기존의 많은 연구자들은 주로 메이지 시기의 신문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에 관한 초창기 연구로서 야마모토 후미오(山本文雄, 1976)의 『일본 매스커뮤니케이션사(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史)』에서는 메이지 시기의 매스미디어로 신문만 다루었고, 메이지 시기의 미디어에 대한 단행본으로 카토 히데요시(加藤秀俊)와 마에다 아이(前田愛) 간의 대담을 엮은 『메이지 미디어 고찰(明治メディア考)』에서도 주로 다뤄진 것은 신문과 잡지의 활자 미디어였다. 그 외에 전쟁 이후에 이뤄진 초창기 신문사 연구로는 야마모토 다케토시(山本武利, 1973)의 『신문과 민중: 일본형 신문의 형성과정(新聞と民衆: 日本型新聞の形成過程)』이 있다. 오노 히데오의 제안에 따라 제도와 문화 형

10 요시미 순야(2002)에 의하면, 이렇게 일본 신문의 역사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오노의 주장은 서구의 시각을 강하게 내재화한 그의 사고방식에 기초한다. 즉, 독일의 〈플루크블라트〉를 발견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것(かわら版)’을 찾아냈다고 오노 히데오가 고백했다는 것이다.

태로서 신문에 나타나는 일본적 특성을 역사적으로 탐구한 대표적인 연구로 볼 수 있다.

특히, 야마모토 다케토시는 메이지 시대의 신문 역사를 통해 불편부당(不偏不黨)을 표방하는 일본형(日本型) 신문의 성격과 민중의 사회의식과의 역동적인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근대사 속에 자리매김 하려고 했다. 그리고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고 ‘불편부당’의 이름으로 중립적인 보도를 행하는 일본 신문의 성격이 어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인지를 고찰한다. 영국 신문역사와의 비교를 통해 일본의 신문역사 상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던 야마모토가 먼저 주목한 것은 현대 영국 신문계가 19세기 말 ‘노스크리프’ 혁명 이래 (격조 있는 언론 활동에 의해 세계의 정치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고급지와 (정치적 영향력 없이 주로 선정주의적 오락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지로의 양극 분화가 메이지 전기(前期) 일본 신문계의 ‘大신문’, ‘小신문’ 양상과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분석에 의하면, 현대 일본 신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언론 활동과 지면 내용을 영국 신문의 고급지와 대중지를 혼재시킴으로써, 기존 ‘大’, ‘小’의 식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일본 신문의 또 다른 특징은, 좌우의 불특정한 정당과 정파의 지지층까지 아우르며 독자층을 폭넓게 개척함으로써 세계 일간지 발행 부수 베스트 상위권에 점할 정도로 거대 부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내용의 잡거성(雜居性)과 다양성, 독자층 저변의 광범위함, 그리고 발행 부수의 거대성이라는 일본 신문의 특징은 일본의 전통적인 ‘읽기 문화’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지만,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표방하지 않는 ‘일본형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형 불편부당성’은 이미 1958년 고우치 사부로(香內三郎)의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었다. 고우치 사부로는 ‘일본형’이라고 명명한 주된 이유는, 영국과 미국 신문의 ‘불편부당성’은 정치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자신의 입장에 부합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논설이나 기사를 신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과 명확히 차별화된다고 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이 평상시에는 물론 선거 때에도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대한 지지 태도를 표명하지 않는 일본 신문의 불편부당성은 신문의 편집요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면서 신문 활동을 벌이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데서도 확인된다. 야마모토 다케토시의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그가 현대 일본 신문의 불편부당성이 메이지기와 다이쇼기를 거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밝혔다는 데 있다. 그는 메이지기 일본형 신문의 형성과정을 민중사와의 상관관계, 정치 과정에서 신문이 수행하는 역할의 변화, 그리고 신문업계의 흥망이라는 시각을 바탕으로 입체적이고 구조적으로 실증하고자 하였다.

메이지기의 불편부당성은 어용 신문, 정당 기관지, 독립 신문, 소신문의 네 가지 계보가 착종되어 전개되었고, 메이지 말기 이래 자본주의화의 조류 속에 놓인 일본의 신문들은 본래 가지고 있던 대립의식을 잃어버리고 영리 추구를 위한 ‘불편부당성’이나 ‘엄정 중립’을 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메이지 말기 신문들이 ‘불편부당성’을 스스로 외치기 시작했던 또 다른 배경에는 상공층의 독자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는 것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 야마모토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메이지기의 자본주의는 번벌(蕃閥) 정부의 식산흥업 정책과 그에 편승했던 상공 계층에 의해 추진되었다. 산업자본의 정치 과정 속에서 상대적 독자성은 메이지 30년대(1890년대)에 접어들어 싹텄지만, 일반 상공 계층의 기업가적 정신 구조에는 오히려 정치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자세가 강화되었다. 이들 政商 계층에 있어, 정부의 경제 정책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에 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불가결했다. 이 정보원은 주로 신문이었고, 그 정보는 정부와 정당색을 가능 한도로 탈색시키는 ‘무색투명’한 편에 가까웠다. 그리고 ‘불편부당’한 정보는 객관적인 경영 판단 재료가 되었다. 요컨대, ‘무색투명’한 정치경제 정보를 추구하는 상공층이 양적으로 증가했던 것은 신문 내용의 ‘불편부당’화의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된다.

일본형 불편부당성이 형성되던 초기, 지식인 독자층은 불편부당이라고 자칭하는 신문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었지만, 확립기에 접어들면 이들 또한 대부분 신문사의 불편부당한 신문 활동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렸다. 그리고 〈아사히신문(朝日新聞)〉으로 대표되는 ‘소신문’ 계보를 중핵으로 하여 다른 계보의 신문을 주변화시킴으로써 결국 메이지 후기에 아사히형(型) 신문으로 일원화되었다. 아마모토는 이러한 개념과 속성의 불편부당성이 확립된 과정의 역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천황제를 보필하고 민중과 정당을 탄압하고자 번벌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던 때, ‘불편부당’의 신문이 신문계의 주류 자리를 점하였던 것은 지배체제를 온존시켰거나 강화시켰다. 이로써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신문이 일본에는 탄생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본형 불편부당성은 현대 저널리즘의 주류로 일컬어지는 ‘객관 보도’로 발전하였다. 나가 마사키(中正樹)(2006)의 저서 『‘객관 보도’란 무엇인가: 전후 저널리즘 연구와 객관 보도 논쟁(客觀報道とはなにか: 戦後ジャーナリズム研究と客觀報道論争)』에서는 일본의 저널리즘 연구가 변천하는 과정 속에서 ‘객관 보도’에 관한 언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일본에서 ‘객관 보도’는 1940년대 후반에서 50년대 사이 GHQ 점령기를 거치면서 도입되었고, 1960년대에서 70년대 안보투쟁과 베트남 전쟁 보도, 매스미디어의 발전과 오락화 경향 속에서 성립되었다. 하지만 그 뿌리는 메이지 후기 확립된 일본형 불편부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형 불편부당주의와 객관 보도가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탐구하고 성찰하는 연구들은 메이지, 다이쇼, 쇼와 세 시기에 걸쳐 신문 기자, 평론가, 작가, 사상가로 활약했던 하세가와 노제칸(長谷川如是閑; 1875~1969)의 저널리즘 사상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불편부당, 공정 중립, 객관주의 등의 가치가 현대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지만, 하세가와는 이러한 원칙들이야말로 ‘저널리즘의 자본주의적 상품화’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적 입장에서 있었다(佐幸信介, 2014).

2) 일본적 사회사상으로서의 저널리즘론에 대한 탐구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을 도모하는 것 역시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일본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가 마사키(2006)는 일본의 저널리즘 연구 지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하나는 이데올로기론적 저널리즘론, 환경론적 저널리즘론, 사회학적 저널리즘론을 포괄하는 이른바 ‘이론 연구’이다.¹¹ 아카데미즘 출신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이론, 내용 분석, 역사 검증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또 다른 하나는 실용학적 저널리즘론과 경험적 저널리즘론을 포괄하는 이른바 ‘비평(비판) 연구’이다. 주로 저널리스트, 평론가, 저널리즘 출신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널리즘 비판이나 비평이 포함된다. 경험적 저널리즘론의 경우, 개별 경험에 지나치게 밀착해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 자체를 조감하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일본 저널리즘 연구의 주류로 발전해 온 것은 저널리즘 ‘이론’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저널리즘 그 자체를 비평하고 비판하는 연구, 즉 ‘저널리즘론’에 관한 연구였다

11 ‘이데올로기론적 저널리즘론’, ‘환경론적 저널리즘론’은 하야카와 겐지로(早川善治郎)가 분류한 연구 유형이다. 하야카와에 따르면, 전자는 맑스주의 영향하에 전개된 것으로 쇼와 초기의 토사카 준(戸坂潤), 나카이 쇼이치(中井正一), 전후 시기의 야마모토 아키라(山本明) 등이 이 유형의 계보에 포함된다. 후자는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범주에 속하는 인식론으로, 복제(copy)론, 현지(現地) - 지도론(地図論), 사회적 상징론 등의 이론적 계보를 지칭한다. 하세가와 노계간(長谷川如是閑),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 후지타케 아키라(藤竹 暁) 등이 포함된다. 반면, ‘사회학적 저널리즘론’은 타마키 아키라(玉木明)가 분류한 유형으로 커뮤니케이션이론을 매개로 하는 연구 조류이다. 타마키는 이 유형의 저널리즘론은 저널리즘을 지나치게 외재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널리즘 자체의 메커니즘을 도외시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中 正樹, 2006 참조).

(中正樹, 2006, pp. 14~15). 철학자 토사카 준(戸坂潤)이 저널리즘의 본질은 '비평 기능'에 있으며, 비평은 저널리즘의 문제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주장한 것처럼(1968), 일본의 미디어사 속에서 저널리즘 연구가 '저널리즘 이론'이 아니라 '저널리즘론'으로 발전해 온 것은 일본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 저널리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종의 '사상'으로서의 성격을 강력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신문 기자이며 연구가이기도 했던 하라다 토이치로(原田棟一郎)의 저서 『신문도(新聞道)』(1927)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 하라다가 주장한 것은 저널리즘에 숭고하고 종교적인 정신, 유럽 기사도와 일본 무사도의 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저널리즘의 번역어로 '신문도'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철학자이자 평론가, 정치 운동가이자 대중문화 연구자이기도 했던 츠루미 슌스케(鶴見俊輔, 1965, pp. 7~11)는 『현대일본사상대계12: 저널리즘(現代日本思想大系 12: ジャーナリズムの思想)』에서 메이지기부터 다이쇼기, 쇼와기에 걸쳐 일본의 매스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 분야에서 활약한 대표적 논객들의 글을 소개하였다. 각각의 논객들이 언론 활동을 전개하면서 공적으로 혹은 사적으로 경험했던 다양한 일상과 생각들, 소회를 담아 기술한 글들을 모아 저널리즘의 의미와 역할을 성찰하기 위함이었다. 이 책에서 츠루미는 인간 중심의 커뮤니케이션과 저널리즘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의 역사적 전통 속에서 발달해 온 '매일 매일을 기록하는 문화' 및 '일기문학'을 살려, 공사 구별 없이 시민 누구나 자신의 생활을 말하고 기록하는 활동 속에서 저널리즘의 본류를 새롭게 발견해야 함도 함께 주장했다. 이는 메이지 이후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신문사나 잡지사 등 특별한 직장에서 일하는 직업적 활동이라는 의미로 고착됨으로써 커뮤니케이션 만능주의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했기 때문이다.

하세가와 노제칸의 저널리즘 사상도 주목할 만하다. 하세가와는 불편부당이나 공정 중립 보도는 상업주의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는 저널리즘의 자본주의적 상품화라고 비판하였다. 저널리즘을 '사회적 감각의

대립 관계'로 해석한 하세가와에게 있어 신문은 사실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그 사실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는 자, 혹은 특정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자와 그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자 사이에서의 갈등과 적대, 통제와 저항,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적 의식(dialogic consciousness)'이다. 또한 신문은 정치, 경제, 학문, 문학 등의 모든 사회 현상을 '신문의식(新聞意識)'을 통해 총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문학적 수단으로 규정했으며, 여기에서 신문의식은 역사를 인식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즉, 신문은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과정에 대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며, 저널리즘은 역사 흐름에 능동적으로 간섭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요시미 순야, 2002, 49~51쪽; 佐幸信介, 2014).

이처럼, 일본에서 신문학이라는 학문은 미국식 경험실증주의 연구 풍토가 도입되고 사회 정보나 매스커뮤니케이션의 한 부분으로 포섭되는 과정을 거쳐 왔으며, 저널리즘 영역에서는 수많은 논쟁과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일본형 불편부당성이나 객관 보도 사조가 확립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미디어사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저널리즘론'이나 '저널리즘 비평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논의와 실천 과정에서 '저널리즘'과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다른 속성의 것으로 구별하는 인식과 태도이다. 즉, 매스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으로 가치 중립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본다면, 저널리즘에는 행위자들의 주체적 의지와 이를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맥락이 필연적으로 담겨질 수밖에 없으며¹², 나아가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이야말로 신문과 저널리즘의 본질이자 역할

12 시마자키 켄이치(島崎憲一)는 『현대 신문의 원리(現代新聞の原理)』(1968)에서 뉴스 가공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뉴스 가공론에 의하면, '뉴스는 전달할 의지를 지닌 자가 사실의 본래 형태에 대해 지각한 시의성과 일반성을 '스스로가 판단한 가치'에 맞추어 5W 1H라는 객관화 양식에 맞추어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양식이 아무리 객관적이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뉴스 가치 평가에는 '뉴스 송신자의 주체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태도이다(武市英雄, 1998).

이라고 보는 관점과 사상이 일본 미디어사의 역사적 경험과 특수성을 체화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5. 자유주의의 지층: 신문/여론의 역동성에 대한 탐구

요시미 순야가 탁월하게 지적한 바 있듯이, 전간기(戰間期) 일본 신문연구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던 오노 히데오의 신문 역사 연구와 코야마 에이조의 선전 연구와는 미묘하게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 접근 방식은 신문의 다층적 투쟁과 태생적 모순, 혹은 사건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정치학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 특징이었다(요시미순야, 2002, 49쪽). 오노와 코야마에 의한 두 접근 방식이 근대 일본 국가의 제국주의와 국가주의를 지탱하는 축이었다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제국주의와 국가주의에 대항하는 지적 흐름으로서 1910년대 이후 일본 정치·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 나타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향, 즉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의 연장선 위에 놓여 있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저널리즘의 '대화적 의식'이나 상호작용적 측면에 주목한 하세가와 노제칸과 그의 사상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지적 계보는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또 다른 지층을 구성한다. 이 글에서는 이를 '자유주의의 지층'으로 명명하였다. 여기에는 소문에 대한 최초의 탐구와 세론 개념의 재발견을 통해 여론 과정의 역동적 측면을 포착하고자 하는 미디어사 연구가 포함된다.

1) 소문(rumour)의 위력에 대한 최초의 탐구

시미즈 이쿠타로(清水幾太郎)의 연구 『유언비어(流言蜚語)』¹³ 는 일

¹³ 최초 출간연도는 일본평론사에서 출판된 1937년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 재출간되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인 2011년에는 치쿠마학예문고(ちくま学芸文庫)에서 개정판을 출간하여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 신문학의 두 패러다임의 틈바구니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접근 방식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과정에 대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을 드러내 준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요한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이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일본 열도의 지리적 특성은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용어로 보자면, 장기 지속(longue duree)의 역사에 해당된다. 역사를 행위자들의 사건사로 국한시키는 데 반대하는 브로델에게 가장 중요한 역사는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구조사이다. 역사의 맨 아래 가장 넓은 층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 구조사는 인간을 둘러싼 주위 환경과 연관된 역사이다(남경태, 2012, 184~189쪽). 이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지진은 일본인의 주위 환경과 연관된 장기 지속의 역사에 속한다. 그러나 일본인이 소문이라는 미디어가 가진 위력을 실감하고 역사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역사적 계기는 1923년에 발생한 관동대지진(關東大震災)이었다. 마즈다 미사(松田美佐)가 2014년에 발간한 『소문이란 무엇인가: 인터넷에서 변용하는 ‘가장 오래된 미디어’(うわさとは何か: ネットで変容する ‘最も古いメディア’)』에서 밝히고 있듯이, “소문의 강력한 힘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 둘 사건은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일본에 퍼진 ‘조선인 폭동설’이다”(21쪽). 그리고 주지하듯 ‘조선인 폭동설’이라는 소문은 실제로 조선인 대량 학살이라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다¹⁴.

14 일본의 진보적 시각의 역사 연구자인 야마다 쇼지(山田昭次)에게 관동대지진 당시 발생했던 조선인학살 사건은 그 책임을 물어버릴 사안이라기보다 한일 양국이 되돌아봐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과 그 후-학살의 국가책임과 민중책임』(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とその後-虐殺の国家責任と民衆責任)(2011), 『관동대지진 당시의 조선인 박해-전국 각지에서의 유언비어와 조선인 학대』(關東大震災時の朝鮮人迫害-全国各地での流言と朝鮮人虐待)(2014) 등의 저작은 관동대지진 직후의 조선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지적 반성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과 같은 대재앙과 그 속에서 위력을 발휘한 소문에 대한 일본인들의 역사적 경험은 미디어로서의 소문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소문(혹은 유언비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학술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시미즈 이케타로의 『유언비어』(1937)이다. 저자는 1946년판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배경을 밝히고 있다.

보도·여론·선전 등 이와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상당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 유언비어라는, 말하자면 변태적인 현상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과학적 연구의 값어치도 없는 것처럼 생각되고 있는 것 같다(清水幾太郎, 1946/1977, 1쪽).

소문 연구의 대표적이지 않더라도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저작들- 고든 올포트(Gordon Allport)와 레오 포스트맨(Leo Postman)의 *The Psychology of Rumor*(1947), 타모츠 시부타니(Tamotsu Shibutani)의 *Improvised News*(1966) - 과 비교해도 시미즈의 저작은 시기적으로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도 두 저작과 차이가 있다. 뒤의 두 저작이 대체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사례를 중심으로 소문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줄여 볼 목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인 데 반해, 시미즈의 저작은 전쟁 이전의 언론 통제 상황에서 1936년 발생하여 유언비어를 단속 대상으로 했던 2·26사건(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 직후에 쓰였다.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발생한 ‘조선인 폭동설’이라는 유언비어, 그리고 1936년 2·26사건 직후 발생한 유언비어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것은 이후 소문(유언비어)에 대한 많은 역사 연구의 실체적 토대가 되었고, 시미즈의 연구를 위시한 고전 연구들은 향후 일본의 소문 현상을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지적 토대가 되었다. 야마모토 후미오(1969)의 연구 「일본 근대의 소문에 대하여(日本近代の流言について)」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발생했던 소문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전신과 같은 신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발생한 소문, 사회제도 개혁에서 비

릇한 소문, 미신이나 속설에 의해 발생했던 소문, 저명한 고인(故人)을 둘러싼 소문, 권력자에 관한 소문, 정치적 모략에 의해 만들어진 소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의 전시 소문 등이다. 한편, 마츠오 다카요시(松尾尊兪)의 연구(1963, 1964)와 강덕상(姜德相, 1963)의 기념비적인 논문 이후, 오히타 히로시·미카미 순지(大畑裕嗣·三上俊治)의 논문 「관동대지진 하의 ‘조선인’ 보도와 논조(關東大震災下の‘朝鮮人’報道と論調)」(1987)에서는 “관동대지진 직후 ‘조선인 폭행(폭동)’ 유언비어 사건과 조선인 학살 사건을 신문사·언론 통제사, 대지진 당시 매스미디어의 기능 등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나아가, 마츠다 미사(1993)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소문 연구’에서 ‘소문을 통한 연구’로 확장시키기 위한 이론적 작업을 시도했는데, 이를 위해 알프레드 슈츠(Alfred Schütz)의 생활세계론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2) 세론(世論, popular sentiments) 개념의 재발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Heidegger)는 인간세계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명제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언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일본 미디어사 연구자들은 2000년대에 들어 흔히 여론(輿論, Public Opinion)으로 통칭되는 개념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세론(世論) 개념을 ‘재발견’하고, 이 둘을 구분하여 사용함으로써 전후 일본 역사 속의 미디어와 국민들 의견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있다.

미야다케 미치코(宮武実知子, 2003)의 ‘세론’ 개념의 생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만주사변 이전인 1930년 키타 소이치로(喜多壯一郎)가 「여론과 저널리즘(輿論とジャーナリズム)」이라는 논문에서 ‘여론’과 ‘세론’을 구별하였다. ‘여론’은 “공중적 의식으로서 개인이 어떤 매개적

표 1. 여론과 세론의 개념 비교

여론(輿論, public opinion)		세론(世論, popular sentiments)
가산적인(디지털적인) 다수 의견	정의	유사적인(아날로그적인) 전체의 기분
19세기 부르조아적 공공성	이념형	20세기 파시스트적 공공성
활자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전자미디어에 의한 통제
이성적 토론에 의한 합의 = 의회주의	공공성	정서적 참가에 의한 공감 = 쾌락주의
진위를 둘러싼 공적 관심(公論)	판단기준	미추(美醜)를 둘러싼 사적 감정(私情)
명망가 정치의 정통성	가치	대중민주주의의 참여 감각
'명분/원칙'의 말	내용	'본심'의 육성(肉聲)

*출처: 佐藤卓己, 2008, p. 2.

수단을 통해 자기의 판단과 타인의 판단과의 유사함을 암시적 작용에 의해 공통으로 의식"하는 것이었다. 반면, '세론'은 "여론에 대한 세론이자 평론이기도 한 대화의 변형"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인식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독자의 공동 관심 영역에는 도달하지 않은 심리 상태"로 정의하였다. 즉, 여론이라는 것은 선거나 국회, 조사도 없었던 시대부터 존재해 온 그 사회의 집합의식이자 이념과 같은 것이다. 여론 개념이 집합적인 정치적 압력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는 변함없이, '세론' 개념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었다. 요약하자면, 전전(戰前)에는 '여론= 공적 의견', '세론= 대중 감정'이라는 구별이 있었다는 것이다(佐藤卓己, 2008). 그렇지만 전후 새로운 한자표를 제정할 때, "輿"자가 제외되었고, 여론과 세론 두 용어의 표기와 개념상의 차이도 없어지면서 여론의 의미로 '世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¹⁵. 이에 따라, 원래 다면적 의미를 담고 있었던 '세론' 개념을 명

15 현대 일본인들도 '世論'이라는 단어를 '세론(せろん)' 혹은 '요론(よろん)'으로 서로 다르게 읽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선 같은 논문, 57쪽 참고.

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사전류의 문헌을 바탕으로 세론 개념의 형성과정을 검토하였다.

이렇듯 일본의 여론 연구는 통상적으로 여겨져 왔던 여론 개념에서 탈피하여 이루어져 왔다. 개념사의 견지에서 봤을 때, 보다 다면적 개념이었던 ‘세론’ 개념을 복원하고 이를 전후 미디어사에 적용하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다. 사토 타쿠미(2003)의 연구에서는 “전후 여론이 ‘세론’이라고 쓰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읽는 사람이 ‘요론’으로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1945년 항복을 선언했던 천황의 〈옥음(玉音)방송〉에서 인터넷 게시판 사이트 〈2채널(2ちゃんねる)〉에 이르는 다양한 미디어를 분석한 결과, 미디어가 국민 세론을 적극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후의 연구 『여론과 세론: 일본적 민의의 계보학(輿論と世論: 日本的民意の系譜学)』(2008)에서는 종전 기념일, 안보, 도쿄 올림픽, 전공투, 천황제 등 역사적 국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주요 사건의 보도와 여론 조사를 검토하여 권력자에 의해 행해진 미디어의 대중 조작 계보를 추적하였다.

한편, 미야다케 미치코(宮武実知子)는 러일전쟁 발발 직전이었던 1903년 도쿄제국대학 소속 7명의 교수가 러시아에 대한 강경외교 정책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한 사건(일명, 제국대학 7인의 박사 사건(帝大七博士事件))을 둘러싼 여론과 세론을 추적하고 대학과 미디어의 공생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는 이 사건이 대학과 미디어 간 ‘공생 관계’의 기점이며 원형이 되었다고 규정하고, ‘미디어와 독자가 대학 교수를 ‘소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 밖에도 정가월(鄭佳月)의 연구(2010)에서는 패전 이후, GHQ 점령기 당시의 민주화 정책과 세론 조사가 어떤 관점의 구조로 이루어졌는지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분석해 냈다.

6. 민간학의 지층: '미디어 근대성'의 탐구와 미디어 고고학

일본의 저명한 미디어 역사학자인 아리아마 테루오(有山輝雄, 2004)는 미디어사 연구를 거시사적 연구와 미시사적 연구로 나누고, 두 개의 방향성이 일본 미디어사 연구에 각각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거시적 미디어사 연구의 방향성은 해롤드 이니스와 마샬 맥루한, 월터 옉의 문명사적 연구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측면에서 차별점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미디어의 중층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를 인쇄, 음성, 시각 등의 차원으로 나누고 이것들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사회제도에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이니스의 문명사가 “특정 시대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미디어에 주목한 결과, 미디어가 점차 교체되고 있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미디어의 교체사(交替史)나 흥망사(興亡史)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미디어에 새로운 미디어가 중층화(重層化)되고 있는 과정과 서로 얽히고설키는 상태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pp. 14~15)고 지적하였다. 이는 미디어생태학의 견해를 역사 연구에 접목시켜,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평형선상에서 사고하는”(Parikka, 2012) 미디어 고고학(media archaeology)적 시야로 확대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문명사의 상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니스 등에 의한 기존의 문명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서구 중심의 시각을 인류 전체의 미디어 역사로 보편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일종의 과대망상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서구 문화 그 자체를 상대화하는 미디어 역사가 필요하다”(p. 16)라고 제안하였다.

문명사적인 기존 미디어사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학자의 제안이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수용되고 공유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제안이 미디어사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필된 책의 서문에 실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근대적인 미디어가 인간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거시사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2000년대 이후 일본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형성하는 하나의 조류로 정착해 가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러한 미디어사의 조류가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등장했던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의 민속학, 곤 와지로(今和次郎)의 고현학(考現學, modernology) 등과 같은 ‘재야의 학문’, 즉 민간학(民間學)의 전통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본 미디어사의 연구 지형을 구성하고 있는 네 번째 지층으로 주목한 것은 미디어의 역사 과정을 역동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면서 근대성과 중층성에 주목하는 연구 조류이다. 그리고 이를 ‘민간학의 지층’으로 명명하였다.¹⁶

1) 역사 상대화의 출발점으로서 ‘근대’ 시점에 대한 관심

요시미 순야(2002)에 의하면, 1920년대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후원하에 출범한 ‘메이지 문화 연구 그룹’은 초기 신문 연구를 위한 지적 시도의 출현과 관련이 있었다. 가령 일본 내 신문학의 ‘창설자’ 중의 하나였던 오노 히데오는 이 그룹의 회원이었으며 이 그룹의 기관지였던 『신구시대(新舊時代)』에 신문 역사와 관련된 수많은 글을 기고한 바 있다(37~38쪽). 일본의 신문학이 메이지기의 문화를 연구하는, 그리고 대학과 무관한 비전문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에서 태동한 것과 비슷하게,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시초적 관심은 대체로 메이지기 이후 1920년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메이지 유신 무렵 본격화된 서구화

16 일본에서 민간학이라는 학문을 처음으로 제창한 근대 역사가 가노 마사나오에 의하면, ‘관학’은 근대의 기술 도입과 혁신, 그리고 일본 학문의 지도층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지만,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되어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점차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부국강병을 목적으로 한 관학(아카데미즘)의 이면에 쌓인 문제들을 제기하며 등장한 것이 ‘민간학’이지만, 이 역시 부분적으로는 국가주의와 상생하면서 발전했고 때로는 관학보다 더 보수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1983/2008, 13~15쪽). 즉, 이념형적 차원에서 보자면, 다분히 ‘관학=국가주의, 민간학=자유주의’와 같은 이분법적 해석으로 확장될 수도 있겠으나, 실제 현실에서는 두 가지 모두 당대의 사회적 맥락과 연구자들의 사상 및 지향점 등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보이며 전개되어 왔다.

의 물결 속에서 급속하게 진행되었던 도시화를 배경으로 서구의 수많은 근대적 미디어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서구 사회의 경우, 19세기 말 20세기 초 있었던 도시 인구의 급속한 집중화 현상을 지탱하기 위하여 근대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함께 거대한 도시형 시스템 개발이 필요했다. 이러한 것들을 네트워크로 삼아 도시 공간을 뒤집어 놓고 새로운 생활스타일을 만들어 내면서, 사람들의 감각과 의식, 나아가서는 시대 문화 본연의 이상적 상태에 무의식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야말로 도시형 생활의 탄생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源 克, 2000, p. v). 도시형 생활의 탄생에서 근대 일본도 예외일 수 없었다. 더구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일본 사회와 서구 사회와의 격차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연구자들은 생활 속에서 인간 신체의 확장에 해당하는 다양한 미디어를 발견하였다. 그리고 미디어와 인간 감각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마살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을 근대 시기의 일본 사회와 미디어에 적용하면서 이것이 일본적으로 변용(變容)해 가는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메이지 시기 이후 많은 근대적인 문물과(신문이나 사진, 라디오 등과 같은 일반적 의미에서의) 미디어가 일본에 들어왔지만, 이러한 근대적 미디어가 일상생활에 보편화되기 이전 시기, 서구식의 건축물과 기계 장치, 자동차나 전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어우러져 있는 도시 공간은 일반 거주민들에게는 일종의 풍경(landscape)이자 그 자체로 서구의 근대성을 체험하는 미디어였다. Kittler가 언급한 바 있듯이, 도시가 미디어였던 것이다.¹⁷ 이런 측면에서, 도시의 미디어적 속성을 간파하고

17 와카바야시 미키오(若林幹夫, 2002)에 의하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흩어져 있는 지역과 집단의 사이에서, 신체나 제화, 그리고 정보의 교통을 매개하여 그것들을 동일한 사회의 보다 넓은 영역으로 엮어 내는 관계의 장(場)이 되는 것이다. 즉, 도시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 대해서 제3자성을 지닌 매개의 장으로서, 그러니까 ‘간(間, in-between)-공동체적인 제3의 영역으로서의 장소이거나 혹은 특정 장소와 장소 사이의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간-공동체적인 장소이다. 그래서 도시는 하나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다른 제영역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열려 있다는 의미에서, 개개의 장소에 귀속되는 사회를 초월하는 ‘관계의 원리가 지배하는 메타

이를 일본 도시에 적용한 요시미 순야(1987)의 저작 『도시의 드라마투르기(Dramaturgie): 동경 변화가의 사회사(都市のドラマトゥルギー: 東京・盛り場の社会史)』는 이 분야의 고전이라 일컬을 만하다.¹⁸ 2008년 재판(再版) 후기에서 저자가 직접 밝히고 있듯이, 그의 기본 아이디어는 도시의 변화가가 상업·오락 시설이나 교통 시스템, 미디어 정보로 에워싸여 있고, 그 장소에 머물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들과 스스로가 변화가의 ‘상연(上演)-연극의 생성’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즉, “극장이나 영화관의 관객, 백화점이나 상점의 고객, 박람회나 박물관의 구경꾼은 모두 도시 공간 내에 배치되어 있는 다수의 무대 장치와 텍스트와 교섭하고, 이로부터의 상호작용으로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다. 이것을 사회적 집합체의 차원에서 보자면, 이는 거리의 드라마를 연기”(p. 416)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관점에서 그는 변화가의 원형으로 메이지기의 박람회, 1920년대 아사쿠사와 긴자 지역의 ‘상연(도시 연극)’ 사례, 1970년대 신주쿠와 시부야 지역의 상연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초기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요시미 순야는 그 후속 작업을 통해 도시의 시각성에 주안점을 둔 연구로 확장하였다. 예를 들어, 『박람회의 정치학: 시선의 근대(博覧会の政治學: まなざしの近代)』(1992)에서는 박람회가 ‘제국’과 ‘상품’을 디스플레이하고 박물관학적인 시선을 일상생활 영역으로 침투시키는 동시에 대중의 욕망과 오락·구경거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국가의 정치성이 발현된 공간이었음을 밝혀냈다. 『도시의 공간, 도시의 신체(都市の空間, 都市の身体)』(1996)에서는 공간과 신체를 키워드로 근대 일본의 도시 거주자들의 도시 체험을 분석했다.

개별 시각적 미디어를 도시의 시각성을 지탱하는 축으로 보고 탐구

(meta)-장소라고 불러야 할 장소이다. 요약하자면, 도시는 복수의 영역이나 집단 간의 교통 관계를 매개하는 ‘미디어’인 것이다.

18 이 책의 초판은 1987년 코분도(弘文堂)에서 출판되었으며, 2008년에 카와테문고(河出文庫)에서 다시 출판되었다.

하는 연구도 비교적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와 모토 켄지(岩本憲児, 2002)의 『환등의 세기: 영화 전야의 시각문화사(幻燈の世紀: 映画前夜の視覚文化史)』가 있다. 이 연구는 그림과 사진 등 이미지를 스크린에 영사하는 시각 기술 환등기가 메이지기에 들어와 대중 계몽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역사를 다룬 것이다. 에도 시대의 ‘빛과 그림자놀이’에서 메이지기의 대중 스펙터클과 시각 장치와의 연관성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보급되기 이전 시기의 일본 시각 문화 역사를 검토한다. 한편, 메이지시기에 일본의 사진이 대중화되는 과정을 검토한 오가와 나오토(緒川直人, 2013)는 사진이 대중화되는 상업적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던 이전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메이지 초기에 도시에서 번성하였던 사진포(寫眞鋪) - 명소, 게이샤, 배우, 영정 사진 등의 이미지 제조된 사진을 제작 판매했던 사진업의 일종-의 고객층을 분석함으로써, 사진이 메이지기 시각 문화의 한 축이었음을 규명하였다.

한편, 청각 미디어의 도입이 근대 일본 사회에 끼친 영향을 청각성(聽覺性)이라는 견지에서 검토하는, 이른바 청각 문화에 관한 연구도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츠가네사와 토시히로(1984/1998)는 “육성의 기계화”인 라디오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라디오가 가져온 사회적 파장을 검토한 바 있다. 그는 라디오가 [초기 민속학자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의 『신음색론(新音色論)』의 글로 대변되는 도입 초기 ‘소음·잡음 문화’로 여겨지던 사회적 인식을 극복하고 오락 미디어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음성 미디어(축음기, 레코드 등)뿐만 아니라 여타 매스미디어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라디오 만담의 사례와 같이, 레코드와 라디오, 영화, 출판 등 서로 다른 미디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입체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다. 한편, 오늘날에는 처음부터 각종 음향 미디어의 경계를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축음기와 라디오 등을 포괄한 음향 미디어의 사회적 형성과 수용 과정을 연구한 요시미 순야(1995/2005)에 의하면, 19세기 말에는 그 경계가 모호했다. 즉, ‘소리를 소비하는 문화라

는 요인이 기술적 변용의 역선(力線)으로 작용하고, 이 역선이 각 미디어의 형성기에 동시에 작용하여 오늘날과 같은 미디어 문화¹⁹⁾가 배치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디오가 도입 초기 ‘소음·잡음 문화’로 인식되었던 것은, 소리 미디어가 가져온 ‘음(音) 감각’의 양면성, 즉 “장소에 뿌리를 두지 않는 소리, 무한하게 복제되는 평면성으로만 들리는 소리가 주변에 흘러넘치는 상황 속에서 장소적인 소리의 세계에 집착하는”(19쪽) 양면성의 산물임을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근대 일본의 청각 미디어 문화에 대한 탐구는 1990년대 중반 무렵 이후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이나 미디어 고고학 등의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전기/전파 기반의 근대 미디어사를 연구하는 집단적 작업으로 확대된다. 대표적인 저작이 『20세기 미디어(20世紀のメディア)』(1996) 시리즈(1~4권)인데, 시리즈 각 권의 부제는 1권 “일렉트릭 미디어의 근대(エレクトリック・メディアの近代)”, 2권 “속도의 발견과 20세기의 생활(速度の発見と20世紀の生活)”, 3권 “멀티미디어의 제 양상과 미디어 정치(マルチメディアの諸相とメディアポリティクス)”, 4권 “환경 생활로서의 컴퓨터(環境生活としてのコンピュータ)”이다. 부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집단적 작업은 근대 시기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미디어를 인간 감각과의 연관성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들은 거시사의 인식 틀을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미디어의 중층성에 대한 탐구: 미디어 고고학적 접근 방식

이번 장의 도입부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앞 절에서 인용한 문헌들은 대체로 마살 맥루한 등의 미디어 생태학적 견해를 미디어사 연구에 접목시키면서 미디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서구 중심의 미디어 역사를 상대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서구 중심의 미디어 역사

19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는 ‘축음기’, ‘전화’, ‘라디오’라는 미디어 개념 자체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친 사회적·역사적 과정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한다.

를 상대화하려는 시도는 그 문제의식 자체로는 “과학과 한패가 된 권력의 위계적인 질서”로부터 “역사적 지식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였던 미셸 푸코(Foucault, 1980)의 ‘지식의 고고학’과 계보학(genealogy) 기획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김성기, 1991, 238쪽).²⁰ 그렇지만, 이들 연구자들이 명시적으로 미디어 고고학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연구에 불과하지만 명시적으로 ‘미디어 고고학’이라는 제목이 붙은 두 저작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평행선 위에서 사고하는 미디어 고고학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언급할 저작은 아카가미 히로유키(赤上裕幸, 2013)의 『포스트 활자의 고고학: ‘영화’의 미디어사, 1911~1958(ポスト活字の考古学: ‘活映’のメディア史, 1911~1958)』이다. 이 저작은 “전쟁 이전에 일본에서 뉴미디어로 기대 받던 영화가 왜 역사의 변방으로 밀려 곧 잊혀졌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만주영화협회 설립의 숨은 공로자이자 오사카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의 활동사진반 소속이던 미즈노 신코(水野新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토에이 영화사와 스튜디오 지브리의 계보를 밝히고자 한 연구이다. 본래 저자의 교토대학 박사 학위논문 「일본영화교육사에서의 ‘다음에 올 미디어’에 대한 지식사회

20 고고학과 계보학은 일견 큰 차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논의 대상이나 논의의 방식에서 다른 점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고학과 계보학의 관계는 정역학과 동역학의 관계와 유사하다. 정역학은 하나의 역학적 체계에서 그 체계의 평형을 지탱해 주는 힘들의 구조를 탐구한다. 반면, 동역학은 그 힘들의 체계가 변환될 때 그 변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힘들의 변환을 기술하고자 한다. 고고학은 언설들의 형성과 변환을 기술하고자 한다. 고고학은 일종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계보학은 언설들의 형성과 변환을 가능하게 해 주는 지층을 단순히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층 내부에서 벌어지는 힘들의 역학관계를 통해 그러한 변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명이란 원인을 요구하며 이 원인이 푸코에게는 권력이다. 그러나 고고학과 계보학은 서로 불연속적인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서로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고고학이 지식-권력에서 지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계보학은 권력의 문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우, 1998, 130~131쪽).

학적 연구(日本映画教育史における‘次に来るメディア’の知識社会学的研究)』를 출판한 것이다. 이 점이 시사하는 것은, 이 저작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역사학의 연구 방법을 채용하였지만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고고학’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책의 서장(序章) 제목을 “전자서적 원년의 기시감(既視感, dejavu)”으로 붙이고 전자서적의 등장으로 인해 미래에는 “세상에 종이 가 없어질 것이라는 얘기, 좀 더 말하자면 활자가 다음 미래에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현 상황이, “영화가 뉴 미디어였을 시대에 ‘활자 다음에 올 미디어’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었던 상황”(pp. 9~13)에 다름 아님을 보여 주었다. “미디어 고고학적 연구들이 (푸코에게는 익숙한) 암시적이든 명시적이든 언제나 현재에 대한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Parikka, 2012), 이러한 저자의 기획은 통설화되어 있는 미디어 ‘교체사(交替史)’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고고학보다는 오히려 계보학에 가깝다고 할 만하다.

한편, 사토 켄지(佐藤健二, 1994)의 저작 『풍경의 생산, 풍경의 해방: 미디어의 고고학(風景の生産・風景の解放: メディアのアルケオロジー)』은 앞 절에서 언급한 연구들과 유사하면서도, “풍경이 생산되는 아르케(기원)를 탐구하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p. 6)라고 역설했다. 즉, 풍경은 ‘공간 속에 새겨진 텍스트’의 누적이자 ‘인간 실천의 거대한 흔적’이며,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사이의 관계와 거리, 그 공간을 만들어 내는 미디어의 역동성과 중층성을 읽어 내야 한다는 방법론적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근대 일본에 등장했던 다양한 미디어의 중층성에 좀 더 천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처럼 ‘미디어 고고학’,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더 나아가 시각이라는 ‘감각의 고고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입장에 근거하여, 사토는 야나기타 쿠니오와 고헌화 창시자인 곤 와지로의 작업을 계승하면서, 엽서, 삽화, 철도 여행, 거리 등과 같은 풍경 뒤에 출현하는 새로운 사물이나 미디어를 통하여 관습이나 규범을 되돌아보고자 하였다.

7. 나가는 말

이 글은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의 현실을 성찰하고 미래의 지향점을 모색하는 참고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식사회학의 관점에서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형을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일본 신문학의 계보와 일본의 역사적 경험이 일본 미디어사 연구의 지형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요 연구서와 논문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지식사회학적 맥락에서 검토한 일본의 신문학과 미디어 연구 지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1) 1920년대 관학의 성격으로 도입된 신문학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을 강조하는 학풍과 지적 계보를 형성해 왔고, 2) 신문학은 다학제적인 연구 경향을 보이면서, 역사학, 정치학, 철학, 사회학, 인문학, 교육학, 국문학 등 인접 학문 영역과 중첩되거나 혹은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발전했으며, 3) 이러한 지적 계보와 연구 경향 속에서 미디어사 연구는 신문학 연구를 구성하는 세부 연구 영역으로서의 속성뿐 아니라, 미디어 혹은 매스커뮤니케이션 연구 분야의 기초 토대 학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 풍토는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거론하고 인용한 연구자들의 면면에서도 읽을 수 있다.²¹

그렇다면, 일본에서 신문학의 지적 계보와 연구 지형이 형성되는 과정과 일본의 특수한 경험들은 미디어사 연구에 어떻게 작용하여 어떤 흔적을 남겼으며, 그 경험과 흔적들에 의해 어떤 지층을 형성해 왔는가.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형을 형성하고 있는 주요 지층으로 1) 제국주의

21 예를 들어, 요시미 순야는 문화 연구자이며, 이즈카 코이치와 사토 타쿠미는 정통 미디어사 연구자라기보다는 다방면의 연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다. 야마모토 타케토시는 광고홍보학, 츠가네사와 토시히로는 방송학 및 방송 제작을 주전공으로 한 연구자이다. 즉, 미디어사를 주요 전공 분야로 삼아 미디어의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들도 다수 있지만, 문화사나 문화발전사, 커뮤니케이션, 특정 미디어 관련 분야를 연구하고 맥락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과정으로 미디어사에 천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 지층, 2) 민족주의의 지층, 3) 자유주의의 지층, 4) 민간학의 지층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전쟁과 제국 경영의 경험이 투영된 제국주의의 지층이다. 일본의 신문학은 국가의 학문, 즉 관학으로 도입되어 부국강병, 식산흥업 등을 기치로 내세운 근대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그에 따른 전쟁 수행의 도구 역할을 수행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부지불식간,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미디어사 연구자의 인식과 태도에 투영되어 왔다. 우선 언론 통제, 미디어와 권력의 관계, 언론·표현의 자유, 보도의 자유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연구 경향들은 제국주의적 역사관의 극복을 꾀하였다. 전쟁, 그리고 전후 GHQ 점령기의 프로파간다 연구들은 제국주의 시대 일본 국내는 물론, 일본의 점령지였던 조선, 만주, 중국 등을 분석 대상으로 확장해 왔다. 또한 최근 아시아 각국에 대한 연구 관심이 미디어사 연구에서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미디어와 미디어사를 상대화하면서 식민지 및 점령 지역에서의 프로파간다와 미디어의 활동들을 비판적이고 냉정하게 조명하는 연구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국 경영의 경험을 침묵 또는 외면하거나 반성 또는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등 상반된 입장과 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제국 체제 이후에도 연구자의 자의식 속에 제국주의의 경험이 내재해 있음을 방증한다고 해석하였다.

둘째, ‘일본적인 것’에 천착하고 탐구하는 민족주의의 지층이다. 일본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일본적 미디어’와 ‘일본적 연구’에 대해 천착하는 연구 경향이다. 일본 신문학 연구의 선구자인 오노 히테오의 신념, 즉 “우리는 가능한 한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의존하지 말고 일본의 현실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 일본 현실에 대한 연구를 축적하는 것은 일본의 신문학을 하는 학생들의 주요 임무”라는 말을 충실히 따르기라도 하듯, ‘일본적 미디어’와 ‘일본적 미디어 현상’에 대한 탐구는 일본형 불편부당성과 일본형 신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저널리즘을 ‘신문도’나 ‘사회사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인식과 태도, 나아가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의 융합을 바탕으로 한 ‘저널리즘론’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소문, 여론/세론 등 저널리즘과 미디어 현상의 역동성을 탐구하는 자유주의의 지층이다. 일본 정치·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경향이 등장했던 1910년대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연장선상에서 저널리즘의 역동성과 상호작용적 측면에 주목하는 지적 조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양한 입장의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대립과 갈등 관계에서 성립하는 ‘대화적 의식’으로 신문을 파악한 하세가와 노제간의 사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유주의 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연구들은 행위자들의 주체성과 역동성을 포착하고 있다. 또한, 시미즈 이쿠타로의 연구로 대표되는 소문(유언비어)에 관한 연구나, 다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세론’ 개념의 개념사적 복원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자유주의에 기반한 지적 조류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넷째, 미디어 역사의 근대성과 중층성에 주목하는 민간학의 지층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민간학 전통을 따르면서, 미디어의 역사 과정을 역동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 지층에 포함된다. 이들 연구 중 하나는 인간 신체의 확장에 해당하는 생활 속 미디어를 발견하고 미디어와 인간 감각과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다. 마살 맥루한의 미디어 이론을 근대 시기의 일본 사회와 미디어에 적용하면서 그 일본적 변용 과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연구 경향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 고고학적 연구들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평행선 위에서 사고하고, 서구 중심의 미디어 역사를 상대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이 네 가지 지층들은 특정 단일 기준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혹은 상호 독립적이고 대립적인 대척점에서 화석화되어 있는 개념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관학’으로 도입되어 국가주의와 제국주의에 기여했던 초기 신문학부터, 민중적이고 생활사적이며 자생적인 학문으로 출발한 ‘민간학’의 범주에 포함되는 최근 미디어사 연구 동향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 지층과 지적 조류들은 애매모호한 경계들을 넘나들고 횡단하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매우 중층적이고 역동적인

연구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네 가지 지층들로 범주화한 각각의 지적 조류 역시 다양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지향점들을 포괄하면서 복잡하고 중층적인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요시미 순야(2002)는 오노 히데오의 신문 역사에 대한 접근을 민족주의에 기반한 ‘경험주의 언설’로 규정했지만, 이와 동시에 오노는 국가주의적 성격의 독일 신문 학이나 선전과 여론 동향 조사 등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정부 주도의 연구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관학= 제국주의= 부정적’ 혹은 ‘민간학= 자유주의= 긍정적’이라는 이분법적인 해석과 평가도 일견 가능해 보이지만, ‘관학’이 근대 기술의 도입과 혁신이나 일본 학문의 제도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민간학은 관학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자생적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범주에 포괄되는 다양한 연구 조류들 역시 관학으로 출발한 제도권의 아카데미즘 영역과 중첩되거나 때로는 국가주의와 상생하면서 변화 발전해 왔다. 그렇다면, 전혀 상반된 것처럼 보이는 관학이나 민간학 모두 제국주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지층과 명쾌하게 분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미디어는 서로 다른 수명 주기와 역사를 경험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하고 연속적인 과정 속에 놓여 있다고 바라보는 실버스톤(1999/2009)의 설명은 미디어사 연구 지형과 지층에 대한 관점과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미디어사 연구 지형과 지적 계보 역시 다양한 경험과 가치, 사회적 맥락, 사상들이 경합하고 교섭하면서, 그 경계선을 횡단하고 가로지르면서, 연속적으로 혹은 불연속적으로 또 다른 유형과 방식의 지적 조류를 생성해 내고 발전시켜 왔으며, 지금도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 놓여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관학이나 민간학, 혹은 이 글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지향점을 ‘주류’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서로 다른 이름으로 명명한 각각의 지층들과 지적 조류들은 상호 경합과 교섭, 분절과 접합을 거치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으며, 그 과정 속에 일본의 사회와 문화적 맥락,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일본적인 것’들에 천착하는 지적 풍토가 때

우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형과 이를 구성하는 지층들에 대한 이 글의 검토 결과는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에 어떠한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가? 첫째, 미디어의 역사를 조망하는 이론적 시각, 즉 사관에 해당되는 언론학의 지적 패러다임 혹은 계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려 했던 바치럼,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 지형은 제도화된 관학 혹은 아카데미즘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오노 히데오에 의한 신문 역사 연구 계보 및 코야마 에이조의 선전 연구 계보, 그리고 민간학의 전통과 맞닿아 있는 제3의 접근 방식 등 각각의 지적 계보들을 미디어의 역사 현장에 적용하고 해석하면서 역동적으로 구조화된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자면, 한국의 미디어 역사 연구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한국 언론학의 성립 과정에 대한 계보학적 탐구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식민지 근대성'을 중심으로 광복 전후의 한국 언론학이나 미디어 행위에 대한 일본의 영향 관계, 미국식 경험실증주의로 대표되는 서구 언론학 이론과 방법론 도입 전후의 연속성 혹은 불연속성 등에 대한 검토와 검증이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일본의 미디어사 연구는 일본의 전반적인 연구 풍토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예를 들어, 역사에 대한 관심이 여타 전문 분야를 횡단적으로 관통하면서 지탱하는 토대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는 것, 기성 연구자들은 주로 일반 단행본을 통해 보다 풍부한 맥락과 심층적 해석, 자유로운 글쓰기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심화해가고 있으며, 학회지는 학문 후속 세대와 신진 연구자들이 입문하는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미디어 역사 연구의 주변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미디어 역사 연구를 제도화된 한국 언론학의 좁은 영역에 위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과 정치학을 비롯하여 철학, 사회학, 인문학, 교육학, 국문학 등 인접 학문 영역과 중첩시키거나 혹은 연계해 가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셋째, (다소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왜 미디어 역사를 연구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미디어 역사 연구가 가지는 현재적 의미에 대한 문제의식을 연구자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미디어 역사 연구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자기 방어를 하거나 또는 기존 서구 중심의 미디어 역사를 보편화시키거나 또는 미디어의 중층적 성격을 간과한 채 미디어의 역사 과정을 정태적이고 단선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편향성을 가진다면, 이는 미디어의 역사 과정에서 비롯하는 역사성과 현재성의 역동성을 시야에서 놓치게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을 중층적으로 사고하는 미디어 고고학적 관점을 미디어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 받아들여 연구 시야를 확장해 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간의 생각을 지배하고 세계와 사물을 인식하는 통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한국의 경우 주로 학술적 개념을 서구 혹은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여 왔던 역사적 경험을 고려했을 때, (‘세론 개념의 재발견’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미디어 역사 연구의 지평 확대를 위해서는 언론학 영역 내의 주요 용어와 의미들을 개념사의 견지에서 검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성기 (1991). 『포스터모더니즘과 비판사회과학』. 서울: 문학과 지성사.
- 김영희 (2012). 우리나라 초기 언론학 교육의 출현과 그 성격. 『한국언론학보』, 56권 1호, 132~155.
- 남경태 (2012). 『한눈에 읽는 현대 철학』. 서울: 휴머니스트.
- 요시미 순야 (2002). 현대 일본에 있어서의 미디어론적 지(知)의 계보학. 『언론정보연구』, 39호, 33~62.
- 임종수 (2004). 한국방송의 기원: 초기 라디오방송에서 제도 형성과 진화.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370~396.
- 최영목 (2010). 『한국방송정책론: 역사와 전망』. 서울: 논형.
- 有山輝雄 (2004). メディア史を学ぶということ. 有山輝雄·竹山昭子 (編). 『メディア史を学ぶ人のために』. 東京: 世界思想社.
- 飯塚浩一 (2007). メディアの歴史: 研究動向と今後の展望.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0号, 67~78.
- 岩本憲兒 (2002). 『幻燈の世紀: 映画前夜の視覚文化史』. 東京: 森話社.
- 岡田芳郎 (2014). いま読み直す“日本の”広告・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名著20; 『ジャーナリズムの思想』. 『AD STUDIES』, Vol. 49, 40~41.
- 緒川直人 (2013). 明治中期迄の写真舗顧客と写真蒐集家齋藤月岑: 写真の大衆化の「受け手」論的一考察.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82号, 251~271.
- 奥野卓司 (編) (1996). 『20世紀のメディア<2> 速度の発見と20世紀の生活』. 東京: ジャストシステム.
- 小野秀雄 (1970). 『かわら版物語: 江戸時代マス・コミの歴史』. 東京: 雄山閣出版.
- 大畑裕嗣·三上俊治 (1987).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報道と論調(下). 『東京大学新聞研究所紀要』, 36号, 145~258.
- 加藤秀俊·前田 愛 (1980). 『明治メディア考』. 東京: 中央公論社.

- 鹿野政直 (1983). 『近代日本の民間学』. 서정완 역 (2008). 『근대 일본의 학문: 과학과 민간학』. 서울: 도서출판 소화.
- 桂 英史 (編) (1996). 『20世紀のメディア<3> マルチメディアの諸相とメディアポリティクス』. 東京: ジャストシステム.
- 姜徳相 (1963). 関東大震災に於ける朝鮮人虐殺の実体. 『歴史評論』, 7月号, 1~15.
- 城戸又一 (1974). 『講座 現代ジャーナリズム I 歴史』. 東京: 時事通信社.
- 久保田晃弘 (編) (1996). 『20世紀のメディア <4> 環境生活としてのコンピュータ』. 東京: ジャストシステム.
- 小林聡明 (2010). 東アジア・メディア史研究の可能性: 日韓の相互理解と東アジアの和解にむけて. 『都市文化研究』, 12号, 153~158.
- 香内三郎 (1958). マス・メディアのイデオロギー: 「中立性」「党派性」の歴史的系譜について. 『思想』, 403号.
- 佐々木隆 (1999). 『日本の近代14: メディアと権力』. 東京: 中央公論新社.
- 佐幸信介 (2014). 長谷川如是閑のジャーナリズム論と界の構造: メディアとジャーナリズムが交叉する場所. 『Journalism & Media』, No.7, 159~182.
- 佐藤卓己 (2003). 『戦後世論のメディア社会学』. 東京: 柏書房.
- 佐藤卓己 (2008). 『輿論と世論: 日本的民意の系譜学』. 東京: 新潮社.
- 佐藤健二 (1994). 『風景の生産・風景の解放: メディアのアルケオロジー』. 東京: 講談社.
- 清水幾太郎 (1946). 『流言蜚語』. 이효성 (역) (1977). 『유언비어의 사회학』. 서울: 도서출판 청람.
- 鄭佳月 (2010). 世論調査の視座構造に関する歴史的考察: 占領期における民主化政策とPO&SRの認識を軸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6号, 217~236.
- 津金澤聰廣 (1984). ラジオのもたらした社会的波紋. 津金澤聰廣(編)(1998). 『現代日本メディア史の研究』.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田村紀雄 (1999). 大学におけるジャーナリズム教育. 田村紀雄・林利隆 (編). 『ジャーナリズムを学ぶ人のために』 (pp. 3~19). 東京: 世界思想社.

- 武市英雄 (1998). 報道の現状と課題. 春原昭彦・武市英雄 (編). 『日本のマス・メディア』 (pp. 79~120). 東京: 日本評論社.
- 津金澤聰廣・佐藤卓己 (編) (2003). 『広報・広告・プロパガンダ』.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土屋礼子 (2011). メディア史研究の現状と展望. 和田春樹ほか (編). 『岩波講座 東アジア近代通史 別巻 メディア史研究の現状と展望』 (pp. 291~312). 東京: 岩波書店.
- 鶴見俊輔 (編) (1965). 『現代日本思想大系 12: ジャーナリズムの思想』. 東京: 筑摩書房.
- 中正樹 (2006). 『「客観報道」とはなにか: 戦後ジャーナリズム研究と客観報道論争』. 東京: 新泉社.
- 松田美佐 (1993). 噂研究から噂を通じた研究へ: A. Schutzの生活世界論の検討を通じて. 『新聞学評論』, 43号, 132~145.
- 松田美佐 (2014). 『うわさとは何か: ネットで変容する「最も古いメディア」』. 이수형 (역) (2016). 『소문의 시대: 세상이 수상해지면 출몰하는 오래된 미디어』. 서울: 추수밭.
- 松尾尊允 (1963).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上). 『思想』, 471号, 44~61.
- 松尾尊允 (1964). 関東大震災下の朝鮮人虐殺事件(下). 『思想』, 476号, 110~120.
- 宮武実知子 (2003). 世論(せろん/よろん)概念の生成. 津金澤聰廣・佐藤卓己 (編). 『広報・広告・プロパガンダ』 (pp. 56~74). 東京: ミネルヴァ書房.
- 宮武実知子 (2007). 「帝大七博士事件」をめぐる輿論と世論: メディアと学者の相利共生の事例とし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0号, 157~175.
- 水越 伸 (編) (1996). 『20世紀のメディア<1> エレクトリック・メディアの近代』. 東京: ジャストシステム.
- 森 暢平 (2014). 敗戦直後のジャーナリスト教育導入: 占領当局・大学・新聞社の関係をめぐっ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81号, 67~85.
- 長谷川倫子 (1998).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としてのマス・メディア. 春原昭彦・武市英雄 (編). 『日本のマス・メディア』 (pp. 1~40). 東京: 日本評論社.

- 山本文雄 (1969). 日本近代の流言について. 『新聞学評論』, 18号, 134~144.
- 山本文雄 (1976). 『日本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史』. 東京: 東海大学出版会.
- 山本武利 (1973). 『新聞と民衆: 日本型新聞の形成過程』. 東京: 紀伊國屋書店.
- 吉見俊哉 (1992). 『博覧会の政治学: まなざしの近代』. 이태문 (역) (2004). 『박람회: 근대의 시선』. 서울: 논형.
- 吉見俊哉 (1995). 『「声」の資本主義: 電話・ラジオ・蓄音機の社会史』. 송태욱 (역) (2005). 『소리의 자본주의: 전화, 라디오, 축음기의 사회사』. 서울: 이매진.
- 吉見俊哉 (編) (1996). 『都市の空間, 都市の身体』. 東京: 勁草書房.
- 吉見俊哉 (2008). 『都市のドラマトウルギー: 東京・盛り場の社会史』. 東京: 河出文庫.
- 若林幹夫 (2002). 「情報都市」は存在するか. NTT (編) (2002). 『情報都市論』. 東京: NTT出版.
- Foucault, M. (1971). *L'ordre du discours*. 이정우 (역) (2011). 『담론의 질서』. 서울: 새길.
- Foucault, M. (1980).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 ~1977*. C. Gordon (Ed.). Sussex: Harvester Press.
- Murdock, G. (2004). Past the post: Rethinking change, retrieving critique.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19(1)*, 19~38.
- Parikka, J. (2012). Introduction: Cartographies of the old and the new. In *What is Media Archaeology?* (pp. 1~18). Malden: Polity Press.
- Silverstone, R. (1999). *Why Study the Media?*. 김세은 (역) (2009). 『왜 미디어를 연구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최초투고일 07월 03일

논문수정일 07월 27일

게재확정일 08월 05일

A b s t r a c t

An Exploratory Research on Terrain of Media History Studies in Japan

Dynamics of Conjunctures and Segment Between Governmental Studies and Nongovernmental Studies

Sangkil Yoon

Assistant Professor, Shinhan University

Soo Young Jung

MOE-NRF Research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article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trace terrain of media history studies in Japan in the viewpoint of knowledge sociology. Concretely, this article examines which traces pedigrees of communication/media studies and historical experiences leave on terrain of media history studies in Japan. Major strata of terrain can be summarized to four strata: the first is stratum of imperialism. Such stratum reflects historical experiences of imperialistic expansion in modern Japan. The second is stratum of nationalism which tried to search for the things of Japan in media history. The third is stratum of liberalism as intellectual flow which fall under anti-imperialism. The fourth is stratum of nongovernmental studies which emphasize media histories as cumulative process. With these, this article tries to deduct implications on media history studies in Korea. Major implications are as follow: the first i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take account of intellectual paradigm or pedigree in media studies. The second is that interdisciplinary approach can contribute to expanding the base of media history studies in Korea. The third i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have a critical mind of nowness of media history studies. The fourth is that Korean scholars need to take historical approach of major concept into account so as to expand the base of media history studies in Korea.

KEYWORDS Media History • Japan • Governmental Studies • Nongovernmental Studies • Terrain • Stratum